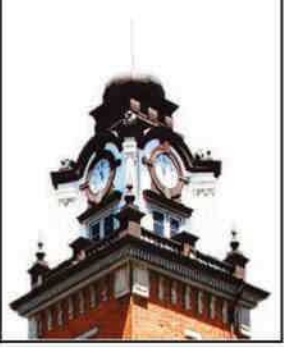




時計塔

SIGETOP



2017년 1월 20일 발행

서울大學教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4권 1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발행인: 李健一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金靜雅 李善姬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34th Annual Medical Convention

March 1 (Wed) - 5 (Sun), 2017

Pacific Palm Resort

One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Reservations: 1-800-524-4557

Main: 855-696-6715 Fax: 626-964-9535

미국 서부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 Los Angeles 교외에 위치한 Pacific Palm Resort 에서
제 34 차 학술대회와 동창회가 2017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립니다.

알찬 학술대회와 좀 더 깊이 있는 non CME lecture program으로 정성껏 여러 동문들과 가족들을 모시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Getty Museum을 방문 하며 Joshua Tree National Park를 둘러 보고

오시는 길에 Palm Spring Outlet Mall에서 쇼핑도 즐기시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기 선배님들은 이번 학술 대회를 동기회로 겸하시려는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다.

부디 많이 많이 참석 하시어 우기가 막 끝난 남가주의 완벽한 날씨에

최신 지견의 학술 정보와 골프와 문화와 쇼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PRE- CONVENTION GOLF (March 1, 2)

OAK Quarry Course

March 1, 10:00 am

Pacific Palms Resort Course IKE

March 2, 8:00 am

TOUR: (March 4, 5)

Paul Getty Museum Tour

Half day: Sat. pm March 4, 2017

Joshua Tree National Park & Shopping

One day: Sun. March 5, 2017



준비위원회: 백길영(65) 장재찬(65) 김명원(68) 송창호(68) 신흥식(68) 윤병인(68) 이현령(68) 이견일(68)
최철(68) 홍광신(68) 변영석(69) 안병일(69) 김성환(71) 이성호(72) 고창범(72) 최광휘(76)
김동훈(77) 그리고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남가주지역 동창회원 일동 드림

34th Annual Medical Convention Program

General Program

March 1, 2017(Wednesday)

7:30am Bus departure to OakQuarry course from Pacific Palm Resort
10:00am Tee time, OakQuarry course(친선골프)

March 2, 2017(Thursday)

8:00am Tee time, Ike course(golf tournament)
3:00pm-5:30pm Registration: outside of Cherry Hill
4:30pm-5:30pm BOD Meeting, Cherry Hill room
6:00pm-9:00pm Class Reunion (각 동기별 한국식당)

March 3, 2017(Friday)

7:00am-9:00am Continental Breakfast, Cima restaurant
7:50am-12:00noon Scientific program session 1, Majestic I room
7:50am-12:00noon Non CME program session 1, Majestic CD room
8:00am-12:00noon Registration, Main lobby
12:00noon-1:30pm Lunch, outside of Majestic I and Majestic CD
1:00pm-5:15pm Scientific program session 2, Majestic I room
1:00pm-4:55pm Non CME program session 2, Majestic CD room
3:00pm-6:30pm Registration, Main lobby
6:00pm-10:30pm Grand Banquet, Colonial AB room

March 4, 2017(Saturday)

7:00am-9:00am Continental Breakfast, Cima restaurant
7:55am-12:00noon Scientific program session 3, Majestic I room
7:55am-11:30noon Non CME program session 3, Majestic CD room
8:00am-12:00noon Registration, Main Lobby
12:00noon-12:30pm Lunch, outside of Majestic I and Majestic CD
12:40pm-6:00pm Paul Getty Museum tour
1:00pm-4:00pm Scientific program session 4, Majestic I room
3:30pm-6:30pm Registration, Main Lobby
6:30pm-10:30pm Banquet, Majestic AB room

March 5, 2017(Sunday)

8:30am-8:00pm Josua Tree All day tour(Lunch, Dinner included)

Non-CME Program

March 3, 2017(Friday)

7:50am-7:55am Mrs.김성환 Moderator
7:55am-8:00am 이건일 President Address
8:00am-8:45am 최도빈 새로운 예술을 꿈꾸는 사람들
8:45am-9:30am 대니얼 석 오케스트라 만들기
9:30am-9:45am Coffee Break
9:45am-10:30am Joshua Grayson Longing for the homeland, Chopin
10:30am-11:15am Panofsky When genetics challenges a racist's identity
11:15am-Noon 홍승수 지구-달 계에 얽힌 우연과 필연의 길항관계
Noon-1:00pm Lunch
1:00pm-1:45 PM 박승균 건강증 vs 경도인지장애 vs 치매
1:45pm-2:30pm 조승렬 뇌 고충증 이야기
2:30pm-2:45pm Coffee Break
2:45pm-3:30pm 이흥규 한국인의 기원
3:30pm-4:15pm 이종호 세계가 놀라는 한국사 7장면
4:15pm-4:55pm Mrs.김홍서 Getty Center에 관한 모든 것
4:55pm Announcement

March 4, 2017(Saturday)

7:55am-8:00am Mrs.김성환 Moderator
8:00am-8:40am 박평식 Bucket List
8:40am-9:30am 박홍진 헐리웃 소식
9:30am-9:45am Coffee Break
9:45am-10:30am 김지영 의사 문필가들
10:30am-11:30am 온기철 중국 근대사 Part II

Theme: New Horizons in Medicine (Imaging in Modern Medicine)

Begin	End	Min	Speaker	Specialty	Title
March 3, 2017(Friday)					
7:50am	7:55am	5	Lee, Kun Il(68)	Presidnet	Welcome address
7:55am	8:00am	5			Opening Remarks Scientific Committee Chair
Moderator: Lee, Hun Ryung(68)					
8:00am	8:30am	30	Lee, Jin Soo(74)	Medical Oncology	New Developments in the Treatment of Lung Cancer: Beyond Targeted Therapy
8:30am	9:00am	30	Park, Seung-Kyoon(61)	Psychiatry	Life Stress and PFC Dysfunction
9:00am	9:45am	45	Kim, Kenneth	Internal Medicine	Latest trends in Accelerating Drug Development/Engaging the Korean American Voice
9:45am	10:00am	15			Coffee break
Moderator: Han, Joon Koo(82)					
10:00am	10:20am	20	Han, Joon Koo(82)	Radiology	Introduction to "Imaging in Modern Medicine"
10:20am	10:50am	30	Kim, Euishin(66)	Nuclear Medicine	Advanced Nuclear and Molecular Imaging in Healthcare
10:50am	11:20am	30	Carroll, Timothy	Radiology	New Developments in MRI
11:20am	11:50am	30	Kwon, Jun Soo(84)	Psychiatry	The use of Brain Imaging as a Biomarker for Schizophrenia
11:50am	12:00am	10			Panel Discussion
12:00n	1:00pm	60			Lunch Break
Moderator: Han, Joon Koo(82)					
1:00pm	1:30pm	30	Seo, Gwy Suk(84)	Radiology	Musculoskeletal Imaging in the ED-multimodality approach
1:30pm	2:00pm	30	Park, Jeong Mi(85)	Radiology	The proper use of imaging studies for Breast Cancer
2:00pm	2:30pm	30	Kim, Bo-Hyun(85)	Radiology	The evolving Role of MRI for the Prostate Cancer
2:30pm	2:40pm	10			Panel Discussion
2:40pm	3:10pm	30	Kang, Hyunseon(98)	Radiology	Beyond RECIST: Assessing Tumor Response in the Era of Molecular Medicine
3:10pm	3:40pm	30	Bae, Kyongtae	Radiology	Radiology: Rolling Stone
3:40pm	3:50pm	10			Panel Discussion
3:50pm	4:00pm	10			Coffee break
Moderator: Jeong, Youngtae(01)					
4:00pm	4:30pm	30	Jeong, Youngtae(01)	Cancer research	Progress in the pathogenesis and treatment of Lung Cancer
4:30pm	5:00pm	30	Park, Young Su(08)	Anthropology	Asian Modernities Imagined in Ethiopia: Historicity of Korean Global Health Projects in Ethiopia
5:00pm	5:15pm	15			Announcement (Introduction of New SNUCMAA website)
March 4, 2017(Saturday)					
7:55am	8:00am				Announcement Science Co-Chair
Moderator: Hahn, Seung Shin(76)					
8:00am	8:30am	30	Park, Haeseong(06)	Medical Oncology	Recent Updates on Management of HER2 Positive Breast Cancer
8:30am	9:00am	30	Sinn, Dongin(02)	Neurology	Introduction to Tests for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9:00am	9:30am	30	Choh, Joong Haeng(69)	Cardiothoracic	Surgery Health Care Disparity in Korean Americans
9:30am	10:15am	45	Cho, Seung Yull(68)	Parasitology	Current Status of Medical Research in Korea
10:15am	10:30am	15			Coffee break
Moderator: Kang, Hyunseok(00)					
10:30am	11:00am	30	Song, Jeehey(14)	Ophthalmology	Vision Disability and Reading Abnormalities in Neuro-Ophthalmic Diseases
11:00am	11:30am	30	Lee Do-Eun(99)	Internal Medicine	Modern approach to evaluate and treat Diabetes Mellitus
11:30am	12:00n	30	Choi, Taewoong(02)	Hematology&Oncology	Stem Cell Transplantation for Severe Autoimmune Disease
12:00n	1:00pm	60			Lunch Break
Moderator: Nam, Myongho(81)					
1:00pm	1:30pm	30	Lee, Seon Kyu(89)	Interventional Radiology	The US Medicare Payment Reform(MACRA): It's NOT just Permanent Doc-Fix!
1:30pm	2:00pm	30	Shin, Yong-Jun(03)	Biomedical Engineering	Interventional Radiology Distributed and Adaptive Personalized Evidence-Based Medicine
2:00pm	2:30pm	30	Kang, Ji Yun	Leadership Development	Physician Leadership Development for the Changing Healthcare Environment
2:30pm	3:00pm	30	Nam, Myongho(81)	Pathology	Choosing wisely campaign: Introduction and laboratory test utilization control
3:00pm	3:30pm	30	Song, Kyungmin(09)	Health Care	Industry The Future of Healthcare Delivery
3:30pm	4:00pm	30			Panel Discussion/Review of program
					Closing Remarks(Introduction of New SNUCMAA website)



동문들에게 드리는 새해 인사

이건일 (68) 동창회장

또 한해가 가고 새해의 밝은 아침이 왔습니다. 정유년 새해에 우리 동문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기원 합니다.

이제 제 34차 서울 의대 북미주 동창회 총회및 학술 대회까지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등록을 해주십시사 하고 부탁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적극 호응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동문들이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동기들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시며 밀렸던 대화들을 나누시기 기대 합니다.

우리의 빛나던 젊은날을 같은 교정에서 보냈던 이 값진 기억을 끝까지 간직 하며 동문들이 더욱 단결 하여 우리의 제2의 조국인 이 미국 땅에서의 생활을 영위 하면 더욱 보람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학술 대회는 최신 의학 지견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의 더 많은 논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 취임 초기에 구상 하였던 대로 non CME 강의를 대폭 보강하여 한국에서 네 분의 저명한 교수님들과 미국내와 이곳 로스앤젤레스 근처에서 각계의 저명인사나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하여 알맹이가 단단하며 우리 정신과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을 들어 보려 합니다.

지금 부터 대회 날까지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 잔치 자리를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주시고 또 동창회에 많은 기부를 해주십사 하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Donation은 SNUCMAA 이름으로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으로 보내주시고 동창회 이메일(snucmaa@yahoo.com) 으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정유년 새해 희망의 아침

서윤석(68) 시계탑 편집장

정유년 새해 희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편집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해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계탑이 여러분들의 맑은 눈이요 귀요 목소리가 되어온 세월이 이제 장장 43년이 되어갑니다. 미주에서는 미주한국일보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우리말 신문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계탑은 국내외의 모든 동문간의 교량 역할을 계속 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기쁜일, 슬픈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

면 서슴치 마시고 원고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나친 정치적이거나 너무 종교적인 원고는 사양합니다. 자녀분들의 자랑스러운 좋은 소식, 모든 분들에게 참고가 될 체험기(임상, 인생)를 환영합니다. 원칙적으로 한글 신문이지만 간혹 필요에 따라서 영문으로 된 원고(영시 등)도 사용합니다. 작년 봄부터 우리 동창회에는 시계탑과 병행하여 신설된 Website가 있습니다. 현 전자통신시대에 자매 역할을 하게 된 신문보다 신속한 이 Website (snucmaa.us.org)도 들어가 읽어보시면 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미주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우수 작품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담골목, 시, 영시, 수필, 체험기, 여행기, 사진 응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작품을 보내주시면 우리 시계탑이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신문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동문의 참여는 물론 배우자(작고하신 동문의 배우자 포함)분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또한 편집회에서는 근래에 신문의 종이

의 질, 조판의 예술적 변화, 전면 칼라를 고려하며 탐색중입니다. 경비를 절약 하면서도 좋은 내용과 품위 있는 시계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늘 사람 받는 시계탑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원(68) 동문 작품

김건언(65)동문의 영애 선출직 판사에 당선

김건언(65)동문의 둘째 딸 김희정(Judy H. Kim)이 지난 11월 치뤄진 선거에서 뉴욕 Civil Court Judge로 당선되어 Invocation Ceremony와 reception을 지난 12월 15일 가졌다. 선출직 판사로 Korean-American이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취임 선서를 하고있는 Judy Kim과 김건언 동문 부부

이원택(71)동문, 재미시인협회 이사장 취임

본보 편집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원택 동문(71)이 금년부터 2년간 재미시인협회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재미시협은 1987년도에 창설되어 매년 문학대회와 시집 <외지>를 발간하고 매월 [시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주 지역에 약 130명이 가입하고 있는 등단 시인들의 모임이니 관심 있는 동문은 (562)743-1436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김영애, 국제 펜 클럽, 2016년 해외작가상 수상



국제 PEN 한국본부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14일에 있는 "2016년 PEN 문학상" 시상식에서 남가주에 거주하는 김영애(Mrs. 김성환 '71) 수필가가 해외 작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김영애 수필가는 서울 출생으로 이화여고, 이화 여대를 졸업하고 수필 시대와 수필 세계로 등단하여 국제 펜 한국본부 회원, 국제 펜 한국본부 서부 지역위원회 이사, 재미수필문학가 협회 부회장과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미국 LA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미주 중앙일보 "이 아침에" 칼럼란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한 생각 물결되어 출렁일 때>와 <사각지대의 앵무새>가 있으며 수상으로는 미주 크리스찬 문협 소설 당선, 한국 수필 해외문학상, 미주 펜 문학상, 서울 문학 오늘의 작가상, 경희 해외 동포 문학상, 무원 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본교 4학년 학생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임상실습

2016년 11월 한 달 동안 네 명의 본과4학년 학생들(박대용, 서정민, 선우윤, 오유정, 이하 가나다 순)이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UPMC)에서 acting intern으로서 임상실습을 하였다. 이 학생들은 졸업 후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기를 희망하던 중, UPMC와 연결되어 내과, 소아과, 정신과에서 각각 실습을 들었다. 학생들은 본원에서의 실습경험과 비교할 때, 환자 및 교수들과 보다 가깝게 일하며 진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달(70졸, Hem-Onc faculty at UPMC)와 이진학(88졸, faculty at UPMC Hillman Cancer Center) 지역 선배동문들께서 학생들을 환대해주었고, 서인석(73) 동문도 UPMC 정신과 faculty인 따님 식구들과 함께 이들을 만나 식사를 하며 후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학생들은 2017년 1월초에 의사국가고시를 치른 후 2월에는 The University of Chicago Medical Center 에서 역시 acting intern으로서 한 달 동안 실습을 할 예정이다.



우리 미주동창회는 미국에서 수련반

기를 희망하는 후배 학생들을 위하여 미국 내 대학병원 등 teaching hospital 에서 근무하는 동창 회원들의 명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의과대학 의학교육실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시계탑 애독자 고 오동렬 동문가족 동창회 후원금 쾌척

남가주에 거주하고 계신 고 오동렬(48) 동문의 부인께서 평소 시계탑을 애독하셨던 오 동문을 추모하며 동창회에 3천달러를 기부하셨습니다. 기부금과 함께 보내오신 글을 소개합니다.

November 4, 2016

Dea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I am writing on behalf of my mother Jung Jin Oh. she is the wife of the late Tong Yal Oh, MD, an alumni member of your association. she was touched and appreciated very much the tribute written about my father in the Sigetop newsletter.

Enclosed is a contribution she would like to make in his memory to his beloved alma mater. She wishes to thank the association for remembering her wonderful husband. Sincerely, Jung Jin Oh

제1회 시계탑 우수 작품상 모집

우리 동문들과 배우자들의 시계탑 원고 투고를 장려하고 예술, 문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수 작품상 모집을 실시한다.

A) 작품 종류

- 산문부문; 수필, 기행문, 체험기, 풍토, 문학평론
- 시부문; 시, 시조, 동시, 영시
- 사진부문; 예술사진, 기록사진, 일반 사진
- 농담골목 부문

B) 응모자격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비를 현재로 납부한 자와 그 배우자나 준회원

C) 원고 규정과 당선작 발표

- 원고는 2016년 7월호부터 시계탑에 게재된 것에 한하며 2017년 5월 에 심사하며 6월에 발표한다.
- 산문은 편당 (A-4)용지 Words process 10 point로 4-5매 이내, 다른 잡지나 신문, 언론, 인터넷 매체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시계탑에 처음 발표되는 것에 한한다.
- 심사는 시계탑 편집위원회 전 위원이며, 사진 심사는 조의열(66), 김명원(68)이 관할한다.
- 상금; 각 부문에 1등(200불), 2등(100불), 3등(50불)
- 제1회에는 수필 부문에 작품상(100불) 3명, 시 부문 작품상(100불) 3명으로 한다.

보내실 곳 SNUCMAA of NA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Fax: (516) 365-5501 / e-Mail: snucmaa@yahoo.com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시계탑 편집위원회

2016-2017 제1차 대의원회 초록



서부 참석자: JJ Grand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김태웅(63) 김명원(68) 송창호(68) 신흥식(68) 이견일(68) 이현령(68) 최 철(68)
변영석(69) 김성환(71) 김일영(71) 이원택(71) 전경배(75) 최광휘(76) 김동훈(77)



동부 참석자: Double Tree Hilton Hotel, Fort Lee, New Jersey
노용면(55) 이희경(61) 한기현(63), 허선행(64) 이명희(66) 서윤석(68) 주광국(68)
강창홍(71) 서인석(73) 한민우(75) 김정아(76) 한승신(76) 이선희(81) 한창규(81)

Proxy:

- 김용식(55) 이만택(58) 채규철(59) 송영두(62) 김택수(63) 추재욱(63) 권정덕(64)
- 김태환(64) 신두식(64) 최준희(64) 김의신(66) 최영자(66) 노영일(68) 윤병인(68)
- 김창남(69) 임응규(69) 박찬호(72) 석창호(72) 오용호(72) 최인섭(72) 김원정(75)
- 박인영(75) 박성철(99)

일시: 2017년 1월 7일, 토요일: 동부 시간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시계탑 편집위원회가 있었고, 이선희(81) 장학위원의 소개로 서울의과대학 북미주 장학생으로 선발된 2011년 본교를 졸업하고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에서 의료 정보학(Healthcare Informatics) 석사과정을 전공중인 김민형 동문에게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음.



1. 서부시간 오후 1시 15분에 동부와 서부의 성원 점점후 이견일 회장이 개회를 선언함. 동, 서부에 참석한 분들의 소개가 있었음.
2. 지난 대의원회, 이사회 초록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으로 승인되었음.
3. 이견일 회장의 인사 및 보고
 - 참석하신 임원, 이사 및 대의원에 감사드립니다.
 - 12월 9-22일 서울을 방문해 흥정용 본교 동창회장의 초청으로 함춘송년의 밤을 북미주 동창회 대표로 참석해 제34차 북미주 학술대회(03/01-05/17) 홍보와 모교 동창회의 협조와 참석을 독려했음. 모교 동창회장, 학장, 병원장 및 교수진들의 참석 약속을 받았음.
 - CME Program은 Scientific Committee의 한승신(68) Co-Chair의 치밀한Planning, 신규호(68) Co-Chair의 CME Accreditation과 이현령(68) Co-Chair의 Local Coordination 으로 진행되고 있음.
 - 회원들의 관심이 매년 더 해가는 Non-CME Program은 이번엔 천문학과 흥승수 우주체험센터 원장, 영화평론가 박홍진, Dream Orchestra 설립자 Daniel Suk, Classical pianist & Musicologist Joshua Grayson 박사, 아주관광 박평식 회장, 철학박사 최도빈, Aaron Panofsky (UCLA) 교수 등 저명한 외부 인사를 초청해 김명원(68) Non-CME Chair가 준비하고, 이번 회기에 총무로 수고하시던 고 김흥서(69) 동문의 급서(9/28/2016, 10월 20일 발행 시계탑 12면 참조)로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다행히 Mrs. 김흥서의 Non-CME 참여와 3월 4일 토요일 오후 Paul Getty Museum Tour Guide를 약속하신대로 하시기로 보고함.
4. Unfinished Business: 없음.
5. Secretary's report: 보고사항 없음.
 - 김흥서(69)총무의 급서로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이견일 회장의 요청으로 Mrs. 김성환이 대행하기로 수락을 받았음.
6. Treasurer's report, 김명원(68), Finance Chair 최철(68) 현 회기에 들어 온 자금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이 보고함.

동창회비 \$47,300 Directory fund \$75 Convention fund \$34,521 GP fund \$4,600 Charity fund \$1,950 Scholarship fund \$9,350 General fund \$16,000 예년에 비교해 저조한 편임.
7. Committee 보고
 - Scholarship committee(오무연 89, 위원장): 서면으로 2016년 수상자를 보고함. Kim TW award(\$2500 each): Cho, Daniel(NJ, Brown Univ Medical School) Lim, Angie(CA, UCLA Medical School) SNUCMAA award(\$2000 each): Park, Jin Hee(Virginia, Rice Univ, Dentistry) Lee, Hyun Min(NY, Purchase College, Music major) Ji, Jonathan(CA, NYU, History major) Kim, Min-Hyung(SNUCM, II),(Cornell Med, MS Healthcare Informatics)
 - Major Changes for 2017(한국 SNUCM 장학생): Application Deadline, 02/15/2017 Personal essay required for both 김태웅 & SNUCMAA Scholarship Candidates

2017 SNUCM Medical Student Retreat during US Clerkship, July 16, Sat. at Leonia, NJ for Participating Students

Hosting SNUCM of NA members: Seung Shin Hahn(76), Jung-Ah Kim Hahn(76), Min-Jong Kang(14), Tae-Kon Kim(01), Sunhee Lee(81), Mooyeon Oh-Park(89), Insuk Seo(73)

- Scholarship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명희(66) 위원장)

2016년 12월 16일 Current Value, \$254,276 이었음. 지난 서윤석 회기 기간 \$10,100을 Fund Management의 장학기금에 보탬. 앞으로 10년 이상 장학활동을 지속하려면 일 년에 2만불 이상 인출하지 않아야 하고, 매 년 Fund Management에 다시 contribution 할 수 있어야 함.

- Publishing Committee, (서윤석(68) 위원장)

시, 영시, 수필, 농담골목중 작품 우수상을 선정해 지난해에 시계탑이 받은 함춘 미주공로상금에서 지불하고 있음. 금년부터 이원택(71) 편집위원이 사임하고 김정아(76), 박은경(00) 동문들이 참여함. 투고하는 원고의 규정을 동문들간의 품위를 지키고 지나친 정치적, 종교적 내용은 사양하고 산문이나 여행기는 너무 길지 않은 범위에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투고를 환영함. 신설된 snuclmaaus.org로 기고하여 주시기를 바랍.

- Nominating Committee (서윤석/노영일 위원장)

2017년 7월 1일 시작되는 46대 북미주 동창회장 후보로 76년도에 졸업하고 SUNY Upstate at Syracuse의 교수로 재직중인 한승신 동문이 추천됐음. Scientific Chair로 여러 번 책임있는 활동을 하였고 금년도 수고하시어 대 환영과 만장일치로 통과 인준되었음.

- Silver Project Committee (신흥식(68) 위원장)

Post Convention All day tour to Joshua Tree National Park on Sunday, March 5 준비(점심과 저녁식사 포함)가 다 되 있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함.

- By-laws Committee, (문대옥(73) 위원장): 이견일 회장 대신 보고.

Silver Project Committee를 ad hoc에서 standing committee 로 by-law 수정 건의 하였음. 대의원회에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차후 By-laws 에서 Final Wording 을 하고 다시 대의원회에 제출될 것임.

- Green Project Committee (강현석(00) 위원장)

참석 못하고 구두로 이견일 회장에게 10명의 GP 회원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 요청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Scientific program의 speaker로 참여하는 GP Member에 대하여 제한된 예산 내에서 보조를 하되, 전체 Green Project의 보조의 한계는 지난 회기의 보조와 유사한 범위 내로 상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Website Committee (주광국(68) 위원장)

Website Committee가 2016년 4월 21일 당시 서윤석 회장의 제안으로 발족돼 Website Design & Development by Gimga Design Group으로 드디어 우리 동창회 website가 2016년 9월 15일 추석을 기해 launching 되었음. Website Wire face 설명과 "snuclmaaus.org(snuclmaaus.com 으로도 됨)를 많이 click 해 주십시오. snuclmaaweb@gmail.com 으로 새로운 소식과 많은 이야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로 홍보를 했음.

- 보고 사항 없는 committees: Fund Raising, Research & Fellowship, Advisory & Exchange, Office Management, Charity, Convention Committee.

8. New Business, 지난 회기에 시계탑 편집인으로 수고한 이원택 동문이 이번 Silver Project가 Standing Committee로 승격 되면서 동창회의 미래에 대한 5년, 10년이고 장기적인 Plan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을 끝으로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음.

폐회 동의와 재청으로 이견일 회장이 참석한 회원들에 감사말씀과 폐회 선언을함.
Prepared by 제2부회장 김성환(71)

시계탑 편집회 초록

2017년 1월 7일 토요일 New Jersey, Fort Lee, Double tree hotel에서 오후 3시에 시작되었다. 폭설이 내리는 날인데도 참석한 분들은 노용면, 이희경, 허선행, 서윤석, 서인석, 이선희, 김정아, 박은경(Face time 영상), 주광국 Website Committee Chair, 황창근 인쇄소 사장이다. 서부의 이견일, 김명원, 이원택 동문들과는 이날 오후 4시에 있는 대의원회에서 연결되어서 같은 내용을 그때 중복 전달되었다.

지난 2년간 편집장으로 40주년 기념문집 발행 등 많은 업적을 이룩한 이원택위원의 사임과 신임 김정아, 박은경 편집위원들의 소개가 있었다. 주광국 website committee chair는 전달사항과 협조사항을 발표했다.

김택수(시), 이한중(시), 서량(산문), 방준재(산문), 이원택(산문) 동문들의 원고가 다소 정치적, 종교적으로 썼다는 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이번에는 이 원고들이 각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편집회 전체의 의견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조건하에 게재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중에는 이미 미주 한글신문에 게재된 글도 있다. 시계탑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지나친 종교나 정치적 성향이 없는 원고를 환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호부터 전면 Color로 하기로 합의했다. 원고 교정, 리뷰와 박은경 대담시리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는 후 오는 4월 1일 다음 편집회가 있음을 알리고 오후 4시에 폐회했다. (글 편집장 서윤석)

총동창회 신설 Web Site 안내

snuclmaaus.org 또는 snucmaaus.com

그동안 개인이 운영하던 Web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명실공히 우리 동창회가 관할하는 Web Site가 9월 15일 추석을 기하여 Launching 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어디서나 snucmaaus.org 또는 snucmaaus.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우리와 연결되는 다른 모든 sites들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올릴 기사나 작품, 이야기, 사진들이 있으신 동문들은 snucmaawe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글들은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 Web Committee를 거쳐서 처리됩니다.

Chair/Vice Chair 주광국(68)/남명호(81), 현 회장, 현 시계탑편집장, 조의열(66)사진담당이 Web Site Committee 구성원입니다.

서진석 (68) 동문을 보내며

마취과 전공의를 하시던 서진석(68) 동문께서 오랫동안 호흡기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지난해 11월 18일 금요일 새벽 3시 50분에 타계 하셨습니다.



저 세상 여행 길을 먼저 떠난 Dr 서진석님께 고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버지니아 코이노스 영생 장로 교회에서의 고별 예배에는 많은 고인의 지인과, 학교 선후배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이견일 미주 의대 동창회장, 펜실베이니아의 정경일 델라웨어의 안세현, 김철, 김진홍, 김영덕, 주광국 등 많은 동기가 같이 하였습니다. 정재성 장로님의 기도와 전

동창회 회장 서운석님의 추모사가 우리의 눈을 적시었습니다. 근래 활동에 불편함을 알고 있었지만, 뜻밖의 비보에 슬픔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이곳 동기 모임에서의 Dr 서의 편안했던 모습과 재치있는 유머에 모두들 안심하였으나, 우리 모두들 거의 평생을 의사로서 살아 왔지만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었던 나약함이 우리들을 더욱 슬프게합니다.

부인이신 송민희여사, 그리고 David, Ann and Danny 자제분, 친지 가족 여러분께 삼가조의를 표하오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Dr 서진석님은 1943년생이며 1968년 의대 졸업후 해군 군의관으로서 군 복무를 마치고 새로운 삶의 꿈을 이루고자 1972년 도미하였습니다. 그는 마취학 전문의사로서 Reading, Pennsylvania에서 2006년까지 근무하였으며 재취있는 유머와 뛰어난 노래솜씨에, 또한 남 다른 좋은 대인관계로 병원에서의 인기가 대단하였습니다. 수술방에서는 노래하는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은퇴후 Northern Virginia로 이주 하였으며 그의 다재 다능함이 이 지역 의사들의 보배였고 leader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 집사로서 교회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봉사 사역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성실한 기독교 교인으로서의 삶이 곧 영생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David Seo은 Lawyer이고, 둘째 Ann은 Teacher이며, 그리고 셋째 Danny는 Environmentalist로서 Ecosystem 분야에서의 활약은 세계적입니다. 아들 Danny는 Green Living의 Champion입니다.

얼마전, 불행하게도 같은 대학 동기인 Dr 서관우를 저 세상에 잃은 일이 있습니다. Dr 서진석께서 Dr 서관우를 애도하며 불렀던 "친구여"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끝으로, 이 노래의 몇 구절을 옮겨봅니다.

푸른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 친구여 /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함께 했지 / 이제 친구의 모습은 어딜 갔나 / 하늘에서 편안히 계시고 / 그리운 친구여

- 신용계(68)

서진석 영전에

김명원(68)

자네 때 아닌 떠남에 말을 잃었네.
어디로 가는 건지
모두들 어디로 가 버리는 건지
아무도 묻지를 않네 그려.

스마트하고 멋있던 자네
다 알면서도
중뿔나게 나서지 않던 자네
상선약수(上善若水)로 살다 간 자네.
이제는 전설이 되어 버린?
자네의 18번들 ...

여윈 것으로 설움을 헤아리자면?
한이 없는 이 설움

살아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
무력한 분노와
멈추어지지 않는 흐느낌 뿐 이라니.

옛 천 년의 달밤을 거닐던 나그네여
명도(冥塗)를 헤매는 발길
차마 어이 잊을거나
사랑하는 부모 형제

한잔 술에
설움을
타서
마셔도 ...

The Flower of Dandelion

Seo, Youn Seok (68)

You, survived from
the pulling and the snapping.
Your straight neck in purity,
your pretty petal of the flower.

Through the night
the life saver,
the dew drops on your lips.
You are not a wild ginseng nor rose,
but you breathe alive
between the crack of rocks.
You, the pretty dandelion.

Your seeds
that dressed in white clothes and
your yellow flowers
that used to stain the three thousand-li,
we smell your sweat here
on the foot of the Shenandoah Mountains.

Your seeds,
lighter than a feather,
were brought to this new land
by the blowing wind and
took root in the ground of America.
You,
the pretty dandelion,
the pretty dandelion.

*이 글은 2016년 11월 21일 서진석 Jin Seok Seo (1943/10/22 - 2016/11/18)박사의 영결식에서 낭송되었다. David (lawyer), Ann (teacher), Danny 세 자매와 네 명의 손자들과 참석한 영어권의 여러분들을 위하여 4월호 시계탑에 올린 '민들레꽃'에 기초를 두고 영결식 전날 밤에 쓰게된 것이다. 고인은 운명하기 며칠 전에 방문했을 때 막내아들 Danny Seo가 주도하는 매 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 - 낮 12시, 미국 NBC TV 방송에 나오는 것을 우리와 같이 보고 즐거워 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1년간 방영이 계속될 것이다. Danny는 몇년 전 People 잡지에 가장 아름다운 세계의 인물 50인으로 선정된 사람이며 또한 Aturally Magazine의 발행인이고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진 clean environment 환경운동가 이다. - 글 서운석 (68)



박은경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이 사람의 향기 10문 10답

이번 호부터 시계탑 Green Project section 박은경(2000 졸, 핵의학) 편집위원이 우리 북미주 동창회원들을 한 명씩 인터뷰하여 소개하는 특별 코너를 시작합니다. 그 첫번째 주인공으로 Cleveland, OH에 있는 이태훈(02 졸, 내과) 동문을 모셨습니다.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2002년 서울 의대 졸업을 하고, 서울 대병원에서 인턴을 수료했습니다. 군 의관으로 3년간 있는 동안 지금의 아내와 미국 한국에서 long distance 연애를 하다가, 군의관 3년차에 결혼 후에, 전역후 미국으로 왔습니다. 첫째는 Mayo Clinic에서 Research Trainee로 일년간 있었고, West Virginia에 있는 Marshall University에서 내과 3년 수련을 받았습니다. 수련 후 J-1 visa waiver를 위해 Huntington VA Medical Center (Marshall University affiliated)에서 3년반동안 내과 attending로 일했고, 현재는 Cleveland에 있는

MetroHealth Medical Center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affiliated)에서 소화기내과 fellow 3년차로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는 뉴욕에 있는 Mount Sinai에서 Transplant Hepatology fellowship을 일년간 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2. 이 지구에 사는 약 70억명의 사람중 개인 이태훈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아내랑 아이 셋과 같이 소박하게 사는 가족입니다. 아내 직장 문제로 한 3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서로 아이 하나씩 맡아서 키우고, 주말마다 3-5 시간씩 운전해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같이 시간 보내는 것이 항상 소중한 즐거운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가족이 모두 같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3. 의대 시절의 추억 중 기억에 남는 장소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의예과 시절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 광장에 앉아서 책 읽던 시절이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는 광장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참 재미있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의대 시절에는 도서관에서 항상 잠 많이 잔다고 의대 친구들이 놀리던 것도 생각나구요.

4. 주중 일과는 어떻게 되고, 주말에는 보통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아내가 full time으로 일하고, 세 아이들이 아직도 어린 관계로, 주중에

는 거의 여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주로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거의 제 시간이 없어서 가능한 일하는 중에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좋아하는 음식, 잘 하는 음식, 자주 먹는 음식, 남들이 먹어보지 못했을 법한 음식은?

집에서 주로 아내와 번갈아가면서 주로 한식을 해서 먹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내보다 음식을 더 잘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아내 실력이 월등히 늘어서 별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항상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먹고 있으면 아내가 너무 맛있게 먹는다면서 와서 빼앗아 먹어요.

6.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글씨가 있다면 시계탑 독자들에게도 권해주세요.

주로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다보니, 저를 위한 책을 읽은지가 한참 되었네요. 시간이 있어도 의학서적/논문을 읽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Genesis in Space and Time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란 책을 한국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읽으려고 e-book으로 사놓기는 했는데, 얼마 못 읽었습니다.

7. 즐겨보는 한국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집에서 다른 일 하면서 종종 틀어놓기는 합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랑 개그 콘서트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

이들에게 한국말이랑 문화를 알려주려고요.

8. 미국내에서 여행 많이 다니셨나요? 기억에 남는 곳, 혹은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여행은 주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아는 사람들 만나러 이곳 저곳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는 나중에 가족들과 같이 로마랑 스위스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신혼 여행으로 갔던 곳인데, 나중에 아이들이랑 꼭 같이 다시 오자고 아내와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요.

9. 나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주말에 Racquetball를 혼자 가서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족들이랑 즐겁게 지내는게 비법이라면 비법일 것 같습니다. 몸 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서...

10. 2017년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6개월 정도 남은 소화기내과 fellowship 잘 마무리 하고, 뉴욕에서 새로운 곳에 잘 정착하고, fellowship도 잘 하는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아내도 새로 직장을 뉴욕에서 구하고 있고, 아이들도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 해야죠. 새로운 fellowship이 일년짜리여서, 뉴욕으로 가자마자 바로 소화기 내과 board 시험도 보고, 2018년도에 시작할 자리라도 알아봐야 해서 많이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년은 1955년도에 의예과에 입학, 교가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를 부르며, 6년 후인 1961년에는 의대를 졸업했으니 이제 우리들 15회 동기동창들은 졸업 55주년이 되었다. 이 기념으로 알래스카 여행을 하며, 우리 동기들의 노래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를 부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여행을 했다. 우리 동기들은 매 5년마다 여행을 할뿐 아니라 하나의 문집도 내었는데, 이번에는 졸업 55주년 기념 “산수, 參壽에 돌아본다.” 라는 문집이다.

지난 번 졸업 50주년 여행에서 “50주년 여행, 이것이 마지막 이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55주년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졸업 60주년 기념 여행도 가능할까?

2016년 7월 23일 Princess Coral이라는 배를 타고 밴쿠버(Vancouver)를 출발, 7일간의 항해를 하며 알래스카의 케치칸(Ketchikan), 주도(州都)인 주노(Juneau), 스케그웨이(Skagway), 빙하를 보며 여행 후 위티어(Whittier) 항에 도착했다. 다음 4박5일의 내륙여행을 하고 8월 3일에는 앵커리지를 떠나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 항해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54명(26부부와 2 singles)이 같이 여행을 하고, 다음 4박5일의 내륙여행에는 모두 28명 동기와 부인이 여행을 계속했다. 한국과 미국, 덴마크를 합쳐 현재 95명의 동기가 살아 있다. 1955년 입학 당시 모두 132명이었으니, 현재로 사망률이 28%다. 알래스카는 ‘거대한 땅’을 의미하는 인디언 말이며 크기는 미국 본토의 1/5이러니 이 짧은 시간에 이 넓은 땅을 얼마나 보았겠나!

항해하며 저녁 만찬 후에는 아늑한 중소형 회의실(Hearts & Mind Room)을 빌려 서울대학교 교가와 모닥불을 부르고, 노래도 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물론 항해 시에는 배안에서 강연도 듣고, 쇼와 영화도 보고, 댄스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며 지냈다.

참고로 알래스카의 인구는 73만 명으로 약 75%의 주민이 미국 태생의 백인이고,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그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 면적은 미국의 20%로 주 사회복지가 좋고, 캘리포니아에서 노인들이 이곳으로 적지 않게 온다.

알래스카 원주민 도착: 최후 빙기에 육지에는 눈과 얼음으로 높이 쌓여 있고, 바다의 수면이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았기에 당시 베링 해협은 육교(陸橋)로 시베리아와 연결되었다. 기원전 16,000-10,000년 경 아시아 북쪽의 사냥꾼들은 큰 짐승 떼를 쫓아 동쪽으로 오다가 시베리아에서 지금의 알래스카로 걸어 건너왔다는 것이다. 빙하가 녹으면서 ‘육교’가 지금의 베링(Bering) 해협이 되었다고 한다.

알래스카 주에서 원주민 보호구역은 따로 지정되어 미국 본토에 비해 원주민과 백인과의 마찰이 적은 편이다. 가이드의 이야기로 알래스카 원주민은 자기 마을에 거주하며 자주 나오지 않지만 더러 시내로 구걸하러 나온단다. 실업률이 높고, 알코올, 마약 중독도 많은데, 알래스카 주정부에서 나오는 혜택도 많기에 여기에 의존하는 인디언이 많다고 한다. 평균 수명도 짧다. 이들을 죽이는 것은 위스키 Jack Daniel, Jean Bean 이라는 농담도 있다.

케치칸의 Potlatch Park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많은 토렘폴(장승)을 보며 한국의 장승을 생각해 해보았다. 다 아는 것처럼 장승은 주로 농촌 지방 마을마다 악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마을 수호신을 말한다.

러시아의 알래스카: 덴마크 태생의 탐

험가인 베링(Vitus Bering, 1733-1867)은 러시아 해군으로 1741년에 러시아 포트르 1세의 의뢰를 받아 북태평양을 탐험하다가 Bering 섬, 베링해협을 발견한다. 발견 후 전 세계에 러시아 제국 영토로 인정받았다. 앵커리지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민속촌에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가옥 양식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민속촌에서 알

명한 “주노 부둣가의 총격전”에서 Frank Reid와 Jesse Murphy에게 사살되었다. 스미스와 Reid는 이 공동묘지 묻혀 있다.

앵커리지: 앵커리지는 아름다운 자연 주변에 둘러싸인 알래스카에서 제일 큰 도시로 알래스카 인구의 거의 반이 이곳에 산다. 한국인은 약 1%이다. 항해가 끝나며 한인 가이드와 합

15회 졸업 55주년 기념 알래스카 여행

손기용(61, 남가주)



래스카 원주민에게 2-300년 전 처음 전파된 러시아 정교인 동방 정교회 St. Nicholas Orthodox Church를 걸모습만 보고 왔는데,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내부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심하다. 이곳에서 통나무로 지은 옛 교회(앵커리지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로 1850년 건물), 새로 지은 교회, 반구형의 둥근 돔(dome), 가로대가 세 개로 이뤄진 십자가,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밖에 있는 개 집 크기의 작은 원주민들의 ‘영혼의 집’들이 인상적이었다. 크루즈 하며 저녁모임에 최길수 동문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

미국의 알래스카 (American Alaska):

윌리엄 슈어드(William Seward, 1801-72)는 링컨 대통령과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국무장관으로 알래스카라는 ‘쓸모없는 땅’을 1867년에 제정 러시아로부터 ‘혈액에’(Lacre 당 2cents 또는 \$7.2mill) 사들였다. 이를 “Seward’s Folly, 슈어드의 우행, 愚行”이라 한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리아 전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슈어드의 우행은 1880년에 주노에 이어 여러 곳에서 중요한, 값진 광산물(석탄, 금, 아연, 은, 구리, 모래, 자갈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며, 곧 금광(gold mine)이 열린다. 실제로 1896년에 알래스카에 금광이 시작되었다.

금광(gold mine): 금광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보기도 했다. 돈을 벌기 위해 많은 광부들이 몰리게 된다. 그 당시 많은 광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에 고생을 했다. 교통도 불편하였고, 더러는 커다란 짐을 들고 산을 오르다 축기도 했다. 초기에는 무법 천지였다. 많은 노동자들이 오고, 술집, 매춘굴, 광패 등이 생기게 된다. 13년 전 우리가 알래스카에 왔을 때는 많은 남자들이 매춘부 집박에서 기다리던 작은 “창녀의 집”을 보았는데, 이번 여행에는 스케그웨이의 ‘Red Onion Salon’이라는 음식점, 그리고 옛날의 술집, 매춘굴을 보았다. 당시 이 술집 창녀와 15분 관계를 맺는데 \$5였다. 그리고 스케그웨이에서 1.5 마일 떨어진 곳에 ‘Gold Rush Cemetery, 공동묘지’를 방문, 악명이 높은 사기꾼 비누장사 Soapy Smith의 무덤을 보았다. 이 당시 스케그웨이는 “지옥보다 나을 것이 없다”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무법 도시였다. 스미스는 걸로 친절하고, 교회에 기부금도 많이 내고 했지만 협잡꾼이었다. 이곳에 오기 전 비누 장사를 하며 사람을 속여 돈을 벌었다. 스케그웨이에서는 가짜 전신 회사를 세워 고향을 그리워하는 광부들에게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전보를 보내는데 \$5를 받았다. 광부들은 고향에 있는 친지들에게 소식을 보냈지만 스케그웨이에서 실제로 나간 전보도 들어온 전보도 없었다. 그는 1898년 유

계 앵커리지를 비롯하여 남쪽으로는 슈어드(Seward), 북쪽으로는 팔머, 와실라 등지를 구경했다. 위티어(Whittier)에서 크루즈를 끝내고 하선 후 앵커리지로 오는 길에 야생동물보호 센터(Alaska Wildlife Conservation Center)를 방문하고 야생동물을 보았다. 앵커리지 연어 부화장에서 알을 낳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을 보고 부화장 내부를 볼 수 있었다. 앵커리지 박물관에서 알래스카의 예술, 역사, 문화 등을 보았다. 위에 기술한 러시아 동방 정교회를 보았다.

슈어드(Seward) 기차관광: 낭만의 관광열차(Alaska Railroad)를 타고 앵커리지를 떠나 4시간 20분만에 미항 슈어드에 도착했다. 기차를 타고 웅장한 협곡사이를 지나며 태초의 원시림과 만년설, 아름다운 빙하, 해변 등을 감상했다. 시커먼 깎벌도 보며 나의 고향 인천을 생각도 했는데 가이드 이야기로 빙하에서 흘러나온 화산재에 의해 검게 보이지만 인천의 깎벌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한다. 그리고 앵커리지 근처의 밀물, 썰물 차는 30feet 넘는다고 한다.

슈어드 선창가에서 많은 어선들을 보고, 어부들이 칼 솜씨로 물고기를 다루는 것도 보았다. 이 항구를 통해 알래스카의 석탄을 한국에 있는 철공장으로 수출한다고 한다. 슈어드 시내에 있는 Alaska SeaLife Center를 둘러 Stellar Sea Lions, 고래, 내가 보고 싶었던 새 puffin 등을 보았다. Resurrection Bay(만, 灣)도 보았는데, 이 만은 빙하에 의해 형성된 이 근처에서 가장 큰 피오르드란다.

무엇보다도 위에 이야기한대로 많은 국민과 정치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알래스카를 소련에서 구입한 고집이 센 슈어드 국무장관을 생각해 보며 지금 한국에도 이런 정치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있다.

관광버스를 타고 슈어드에서 앵커리지로 오는 길에 알리에스카 케이블카(Mt. Alyeska Tram)를 타고 해발 2300 피트까지 올라 아름다운 숲, 산, 그리고 환상적인 7개의 주변 빙하와 턴어게인 만(Turnagain Arm, 灣)을 보았다.

팔머(Palmer): 앵커리지 북부에 있는 알래스카의 농업도시이다. 이곳에서 팔머 비지터 센터(Palmer Museum of History and Art and Visitor Information Center)를 방문했다. 이 센터에서 재배하는 커다란 양배추 및 각종 채소, 꽃과 나무들이 자라는 정원을 방문했다. 식물들이 추위에 적응하고, 여름에는 거의 해가 지지 않으니 온 종일 햇빛 아래에서 자라기에 농작물은 달콤하고 크게 자란다. 2012년에 열린 Alaska State Fair 에서는 여기서 자란 138파운드의 양배추를 볼 수 있었다 한다.

이 도시에서 광산(Independance Mine

State Historical Park)과 해치 패스를 보며 옛적 광부들이 채굴하던 생각도 했다. 팔머에서 Glenn Hwy를 거쳐 동쪽으로 가 마타누스카(Matanuska) 빙하를 볼 수 있었다.

와실라(Wasila): 앵커리지 북쪽에 있는 ‘와실라’는 인디언 추장의 이름이다. 이곳에 있는 개썰매 본부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겨울철 알래스카의 가장 큰 이벤트로 철인 경주라 불리는 아이디타로드 개썰매 경주(Iditarod Trail Sled Dog Race)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하며, 알래스카 허스키(husky, 에스키모 개)의 용맹스런 모습을 보았다.

1925년 1월 알래스카의 서북부에 있는 옛날 큰 도시인 Nome에서 디프테리아 전염병이 돌게 되어 혈청(antitoxin, 항독소 혈청)이 필요했는데 기상악화로 비행기나 배로 이 먼 길을 갈 수 없었다. 이 때 개썰매를 이용 혈청을 무사히 Nome까지 운반할 수 있었다. 이 때 유명한 개가 Balto인데 Balto의 동상을 뉴욕의 Central Park와 와실라에 있는 개썰매 본부에서 볼 수 있다. 개들의 노력으로 인간을 전염병으로부터 무사히 지킬 수 있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생긴 개썰매 대회가 아이디타 로드이다.

와실라는 알래스카의 주지사 Sarah Palin의 고향으로, 그녀는 2008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Sen. John McCain의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였다.

몇 명의 동기들은 와실라 근처에서 북미 최고봉인 6194미터(20,306 feet)의 데날리 산을 비롯하여 만년설이 덮힌 데날리 국립공원의 웅장한 모습과 거대하게 흐르는 빙하와 화강암 계곡, 에메랄드 빛의 아름다운 빙하호수 등을 경비행기를 타고 관광하기도 했다. 비행관광 중 우리가 탄 작은 10인용 비행기는 데날리 산 중턱에 사뿐히 내렸다. 약 10여 분간 어제 밤에 내렸다는 눈 위에서 우리는 “주 하나님 주신 세계”를 노래하고, 기도로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을 뵈듯 했다. 비행기 관광을 하지 않은 동문들은 멀리서 이 산을 볼 수 있었다.

북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Mount McKinley는 2015년에 Mount Denali, 데날리 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데날리는 원래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이름으로 Deenaalee, ‘높은 것’에서 유래했다. William McKinley(1843-1901)는 미국 제 25대 대통령으로 데날리 산과는 깊은 관계가 없었다.

아름답고 웅대한 대자연: 내 능력으로 이들을 기술할 수 없고, 여기저기서 많은 꽃을 보았는데 알래스카의 주화인 물망초와 뉴질랜드를 여행하며 본 Lupin도 보았다.

알래스카, 캐나다 영역과 워싱턴 주의 태평양 해안을 따라 섬 사이로 배가 항해하는 길인 옛날 인디언들의 수송으로 이용되었던 Inside Passage (인사이드 패시지, 내수면)를 가며, 빙하시대에 형성된 빙하 점과 육지 사이에 놓인 작은 도시, 아름다운 해안과 다루림 지역(多雨林, rain-forest), 장엄한 산맥, 작은 마을을 지나며 본다.

연어 (salmon): 케치칸, 주노, 앵커리지 연어 부화장에서 알을 낳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을 보았다.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찾을 줄 몰라 어미의 살고기에 의존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새끼들이 맘껏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두고,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어미는 결국 죽는데 세상의 가장 위대한 모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연어는 자기가 낳은 고장으로 돌아와 산란하고 그곳에서 <다음면에 계속>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날이다. 이곳 Chinle, Arizona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이를 후엔 다시 Virginia 집으로 돌아간다. 처음 오던 날 여러 번 비행기를 옮겨 타고 10시간이 지나 Phoenix에 도착한 후 또 차로 6시간을 운전하며 밤이 되어 이곳에 왔다. 운전도중에 여기저기 찬란하게 눈에 보였던 산재해 있던 불빛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니 그 실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말라버린 잡초들이 널려져 있는 불그스레한 벌판에 흩어져 있는 무질서한 집들이었다. 사막 속의 초라한 마을이었다. 빈곤하다는 West Virginia 촌에서도 보지 못한 정말로 가난한 곳이었다. 길가에는 사막이라 작은 나무들만 있고 키가 큰 나무들은 드물었다. 그리고 시야에는 그리 높지 않은 산들이 멀리 보인다. 이곳은 6천 feet가 넘는 고원이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원주민들이고 내가 일하는 병원에는 백인들이 조금 보였을 뿐이다. 이들은 의사나 간호사들이다. 이 병원 건물은 최근에 지었고 넓게 터를 잡고 있다. 마을에서 조금 외곽에 있는데 그 색깔이 흙갈색이라 잘 보이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은 친절하듯했으나 정말로 웃는 얼굴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한 달이나 같이 일을 하는 병원 직원들도 조금은 친해졌다고 생각했으나 활짝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다. 주유소나 식료품가게 앞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 오래 일하는 의사들에게서 들으니 이들은 알코올 중독자와 당뇨병 환자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돌본 정형외과 환자들은 West Virginia와 비슷했다. Clinic에서 해결이 안 된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170마일 떨어진 Flagstaff로 보낸다. Navajo Nation 안에는 병원이 4개가 있고 그 주변에 작은 Clinic이 몇 개씩 부속되어 있다. 그러나 정형외과 수술을 할 시설은 없다. 그래서 Nation 밖에 있는 곳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보내야 하는 형편이다. 그래도 이렇게 삭막한 사막이지만 주변에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다. Grand Canyon은 차로 3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고 John Wayne이 서부영화에 나오는 바위들 2시간 거리에 있다. 유명한 Monument Valley가 바로 이곳에 있다. 주말에 여가를 이용하여 그곳 View Hotel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나서 눈을 떴다. 아침 햇살이 두 Mitten Butte를 비출 때 나는 문득 말안장에 머리

를 고이고 잠들었다가 깨어나 아침 커피를 마시는 cowboy역을 맡은 John Wayne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도 아침을 먹으며 창밖으로 보았다. West Mitten, East Mitten 그리고 Merrick Butte, 이렇게 삼총사 바위산들이 눈에 들어왔고 서부영화에서 보았던 언젠가는 다시 보고 싶었던 것들이다.

이날 우리 부부는 Four Corners로 향했다. 그 곳은 Utah, Colorado, New Mexico 그리고 Arizona가 한 점에서 만나는 지점이다. 네 주의 땅을 이렇게 동시에 발로 디디고 설 수 있는 명소이다. 몇 주말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 차츰 황폐했던 마을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모두 그런대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더불어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도 젊은 이들은 거의 영어를 하는데 노인들은 원주민 고유의 언어를 사용한다. 주민들의 피부는 조금 검은데 해수욕장을 다녀온 얼굴이 탄 한국사람들 같다. 많은 어린이들도 태어날 때 몽고반점(Mongolian Spot)이 있다고 한다. 한국인의 기원을 연구하는 우리 이흥규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이들의 조상도 우리의 선조처럼 러시아 남쪽 바이칼 호수에서 살다가 베링해를 건너 동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닐까? 아메리카를 1492년 Columbus가 처음 발견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양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사람들은 이미 이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원주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근감을 느꼈고 우리 서로 유전자를 비교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머물던 Holiday Inn은 유명한 Canyon de Chelly의 입구에 있는데 건너편 협곡의 반대편까지는 50마일이 넘는다고 한다. 협곡에는 물이 흐르고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사람들이 이곳에 산 흔적은 5천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곳에 살고 있다.

우리가 머무는 한 달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인 듯하다. 이제 1월이 오면 나는 다시 이곳에 올 계획이다. 앞으로 조금씩 이곳 사람들과 친해가며 더 많은 것을 조금씩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나에게 이렇게 외진 곳에 와서 환자를 돌보아준다고 고맙다는 말도 한다. 원주민(Native)의 사들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처지가 이해된다. 너무도 멀리 문명사회에서 떨어진 땅인 이 깊은 고원지대에 원주민의 나라 Navajo Nation이 있다. 교통이 몹시 불편한 말고도 먼 곳이지만 이처럼 잠시라도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보람이 있다.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 더 녹슬기 전에 나의 배운 의술을 필요로 하는 이곳에 와서 쓸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한다.

<전면에서 계속> 죽는다.
동물: 자연에서 동물들을 보기 힘들었다. 독수리는 많이 보고, 곰도 더러 보았다. 그리고 항해하며 물개, 고래 등을 멀리서 보았다. 어떤 동물들은 한국인을 싫어하기에 잘 볼 수 없었다. 곰은 쓸개를 먹힐까 걱정하고, 노루는 뿔을 뺏기지 말아야 했다. 한국인들에게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 야생의 개도 보지 못했다. 슈어드의 Alaska Sea Life Center, 앵커리지 남부에 있는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는 여러 동물들을 보았다.
무수한 빙하: 알래스카에는 100,000개의 빙하가 있다. 이번 여행에 무수한 빙하를 보았는데, 관심을 갖고 본 빙하는 아래와 같다.
 글레시어 베이 국립공원(Glacier Bay National Park)를 향해 하며 만년설과

빙하, 흰 눈이 덮인 환상적인 산봉우리들이 절경을 보였다. 선상에서 빙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 그 중 이곳에서 본 Margerie Glacier가 나에게 제일 멋있게 보였다. 커다란 여름덩어리가 바다로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다.
 Palmer라는 도시에서 Glenn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에 있는 마타누스카 빙하(Matanuska Glacier)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빙하 중 하나이다. 하이웨이를 떠나 정차한 후 약 1마일 이상 빙하를 걸어가 볼 수 있었다. 빙하 자체가 검게 보였는데 흙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화산재가 덮였기 때문이다. 주노에서 호숫가에 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멘덴홀(Mendenhall) 빙하와 통나무로 지은 작은 예배당 'Chapel By The Lake'를 보았다. Prince William Sound에 있는 College

날 보고 죽었다고


허선행 (64, 대뉴욕)

내가 살아 있다고 해서 분명히 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황당무계한 사실...
 내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내가 죽었다고, 말하자면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호적에 사망신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 있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읽거나 관람하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 두 사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도 최근 어느 의학 Journal에서 읽고 나서 이런 엄청난 일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사회의 실상의 일부를 알게 되었다.

이야기인즉, 어느 은퇴한 80대 초반의 교수님이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어 현금 찾으러 ATM에 가서 돈을 찾으려 했더니 자기 구좌가 아예 없어져서 친구들에게서 돈을 빌려 식사한 다음날 은행에 갔더니 자기 구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래서 좀 늦게 안 일이지만 건강보험도 하늘로 뜨고 말았고 자기 의사한테 전화했더니, 담당 직원이 놀라면서 당신은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다고, 과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냐고? 만약 누가 나한테 "당신이 죽었다던데" 누가 놀라면서 말한다면 나는 그 충격을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하고 어떻게 또 고쳐나가야 할지 그저 망막하기만 했겠다.
 배우자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어쩐지 마음에 안들고 결국 자기의사를 찾은 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했을 것으로 보지만 결국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닐지도 모른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인구에서도 세계에서 3번째)에서 매년 죽어가는 사람 수가 2.3~2.5million이나 되고 2011년에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기록된 숫자가 1만4천명, 그렇다고 보면 나도 1만4천명중의 하나 아니면 2.5million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논법이다.
 Death Master File in SSA에 의하면 매일 Life Altering Mistake 숫자가 매일 38명에 달한다고 (2011년) 그리고 지금도 이 오류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이외에도 여기에 있는 각종 통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신빙성이 의아해진다.
 이렇게 사람 사는 데는 늘 선의나 악의의 오류가 발생해 왔고 그 피해를 보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면 그릇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 끝으로 위의 사실과는 반대로 실제로 죽어간 사람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모든 혜택을 가로채는 가족이나 사기꾼도 많을 것으로 간주된다.

**"Hello,
 피곤한 여인 /
 석양 고운빛"**



이흥빈 (63, 대뉴욕)

석양이 고운건
 들 묶여선 갑다/처절하니
 날마다/철없이 지치도록 원종일
 ...

시앗/지 어미
 여인이 고운건 고돼선 갑다/
 시달려서 찌들어서
 아뭇때고/철없이 지치도록 사시장철

시달려서/총총한 눈길에
 지켜서/바알간 양볼에
 지난밤 매일밤 찌드는 꽃자국은 남을갑다

시앗/지 어미
 시달리는 거이 지치는거이
 처절하니 고운 꽃자국일 갑다

매번 맨날/아뭇때고
 시달려도 지켜도
 흘겨보는 꽃자국으로 남을갑다

후엿 고운 석양 빛이듯
 시달리는 눈빛으로 나중
 지켜도 지 좋은/
 흑여 지아비도 알만한 꽃자국일 갑다

시달려 찌들은들 여인이 고운건
 지켜 무너지는들 사랑 쓸어안고
 정 모아 안아서 고운/
 처절해도 나중 고운 석양같은 빛일갑다 .

Fjord를 항해하며 미 동부의 유명한 대학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빙하들을 보았는데, 이중 Harvard Glacier를 가까이 볼 수 있었다.
 슈어드(Seward) 기차관광을 하며 그리고 관광버스를 타고 슈어드에서 앵커리지로 오는 길에 많은 빙하를 보았는데, 알리에스카 케이블카 (Mt. Alyeska Tram)를 타고 해발 2300피트까지 올라 아름다운 숲, 산, 그리고 환상적인 7개의 주변 빙하를 보았다. 빙하에 의해 생긴 피오르드(峽灣, Fjord)에서 많은 빙산이 떠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물론 '빙산의 일각'을 보았을 거다. 이 빙산 위에 각종 해양 동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많이 볼 수 없었다. 피오르드가 지나가는 주위의 산에서 아름다운 폭포도 보았다.
 크루즈 그리고 육지 여행을 끝내며 우리는 헤어졌다. 물망초(勿忘草,

Forget-me-not)는 알래스카의 주화(州花)로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뜻이다. 이 여행을 마치며 이 물망초를 생각해보며 서로 잊지 말자. 다시 5년 후에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기도 하겠다. 가능할까?
 거의 매일 가랑비가 내렸고, 더러 춥기도 했다. 동기의 한 분은 운전 면허증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여행사가 가이드에 대해 불만이 없지도 않았다. 무어든 완벽할 수야 없겠지. 크루즈에 익숙하지 않은 동문들은 약간 지루했던 것 같기도 했다.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동기들, 어떻게 지내고 있었니? 만나서 정말 반갑다. 건강하게 살거리를 몇 번이고 이야기 하면서 며칠을 꿈같이 보냈다.
 Rf.:
 1) AAA TOURBOOK,
 2) Wiki, & Internet. 3) Tour Book.

우리 20회 동기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4.19 거사(혁명), 5.16 혁명, 3.24 & 6.3 데모로 이어 졌으니 데모로 시작해서 데모로 끝나는 투쟁의 역사를 겪었기에 남다른 감회를 느끼면서 대망의 50주년 행사를 2016년 10월 10일 10시에 시작 하였다.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집합 장소는 옛날 의대 본관이었으며 지금은 행정관이라고 불렀다. 현관에 도착하니 방명록과 명패가 대기하고 있었으며 미모의 아가씨들이 입구에 서서 환영 리본이 달린 꽃송이를 가슴팍에 달아주며 반겨 주었다. 3층 강당에는 100여 명이 넘어 보이는 동문 식구들이 벌써 짝 차있었다.

유경상 대외협력실장의 개회사와 국민의례로 시작하여 강대희 학장, 서창식 병원장 그리고 홍정용 동창회장 등의 환영 인사 말씀을 들었다. 우리 학년이 특별히 많이 참석했음과 우리가 유달리 출중한 학년 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이병훈, 최순채 두 동기회장의 모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의대 발전기금 및 동창회 후원금을 전했다. 다음에 대학과 동창회에서 준비한 감사장과 기념품 증정식이 있었다. 모교에서 준비한 홍보 동영상 보면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한 모교에 커다란 경의와 긍지를 느끼게 하였다. 김경세 동기의 우렁찬 선창으로 교가로 기념식을 끝냈다. 기념식을 끝내고 고궁의 전망이 돋보이는 중식 식당에서 제공된 점심 식사를 하였다.

관악 Campus Tour

오찬 후에 두 대의 버스에 나누어 관악캠퍼스로 향했다. 거의 한 시간이 걸렸다.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을 표어로 하는 서울대학교에 도착하였다. 말로만 들어온 모교의 본고장인 관악 캠퍼스를 처음 방문하는 동기들이 대부분 이었고 설레는 기분이었다. 볼만한 곳들이 너무 많았으나 일정이 촉박하여 두 시간 정도 밖에 관광할 시간이 없었음이 유감이었다.

개선문처럼 서울대 정문을 이루는 구조물은 국립 서울대학교를 의미하며 이곳을 지나자마자 한 여자 재학생이 버스 안으로 올라와서 인사와 안내를 시작 하였다.

대학 본부가 있는 관악캠퍼스는 1975년 종합화 계획에 따라 조성됐다고 한다. 1970년대 14,000여 명이었던 학생수가 1980년대에는 24,000 여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 확장 되었으며 현재 200개의 건물이 있으며 캠퍼스를 감싸고 있는 순환도로의 길이는 5km 이라고 하였다. 현재 관악 캠퍼스에 16개 단과대학에 83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캠퍼스를 버스로 둘러본 다음에 제한된 시간이지만 규장각을 관람하기로 하였다.

규장각

규장각은 조선의 22대왕 정조가 즉위한 해(1776)에 처음으로 도서관이자 왕립학술관으로 세워져 135년간 기록 문화와 지식의 보고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나 1910년 왕조의 멸망으로 폐지된 뒤 그저 고 문헌 도서관으로만 수십 년을 지탱해 왔다. 이후 1990년대부터 서울대학교 부속기관인 규장각으로서 자료 정리와 연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고, 창설 230년이 되는 2006년에 규장각은 한국 문화 연구소와 통합함으로써 학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되살려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규장각은 조선 왕실록, 승정원 기록 등을 비롯한 국보 지정 고서적, 의궤와 같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문화유산, 그 외에도 고문서 고지도 등 다양한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가 하나의 국가 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8을 위하여 건배를 올립시다.”라고. 다음 특별 음악 축하 공연이 있었다. 문성무 준비위원장의 특별 배려로 가능했던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협찬 이었다. 한국 최고 수준급 Tenor와 Soprano가 나와서 30분 동안 열창을 해주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음악회가 끝나고 곧 한식으로 식사가

전주 한옥마을

최근에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주 한옥 마을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다. 현재 995가구 중 한옥이 543채이다. 전주 한옥마을이 지금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을사조약 이후이다. 1911년 전주 읍성이 남문을 제외하고는 성곽이 모두 철거되면서 일본인들이 성 안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시작 하였다. 늘어나는 “일본인 주택에 대한 대립 의식과 민족적 자존심”으로 동친 한국인(특히 양반)들은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팔작지붕에 휘영청 늘어진 곡성의 용마루”를 지닌 준비한 한옥들이 현재의 전주 한옥마을이다.

이곳의 중심가를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거리는 서울 명동거리를 방불케 하는 수많은 인파와 먹거리, 기념품 상가, 한복 대여가게, 식당 등으로 꽉 차어 있었다. 특히 한복을 대여하여 아름답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들이 활보하고 있었다. 불거리도 많았지만 시간상 경기전(사적 339호)과 전동성당, 풍남문 등을 보았다.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봉안하기 위하여 태종 10년(1410)에 지어진 곳이다. 전동성당은 (사적 288호) 프와젤 신부가 설계한 천주교 성당으로 1908에 완공 되었다. 한국 천주교의 최초 순교자였던 윤지충(1759-1791)의 순교한 장소 위에 지어진 성당으로 서울의 명동성당, 대구의 계산성당과 함께 한국의 3대 성당으로 손꼽힌다고 했다.

고종황제, 비운의 황손 이석과의 만남

전주 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대한제국 황족중 한명으로 고종황제의 친손 이석(1941생)씨를 방문 했다.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손인 이석씨는 한국에 사는 유일한 황손이라고 한다. 인물이 흰하게 잘생긴 모습이었으며 아주 친절하시고 서글서글하여 보였다. 월남전에서 어깨부상을 당하여 병원 치료를 위하여 귀국하였었다고 했다. 생계를 위하여 가수로 음반도 냈으며 미국에서 10년을 살았으나 1989년 이방자여사의 장례식 이후 귀국하였다고 한다. 대문을 들어서자 할아버지이신 고종황제를 비롯한 왕실 가족사진들이 가득 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설명하여 주셨다. 전주 한옥마을 안에 승광재라는 곳에 거주하며, 외지를 전전하는 황손을 모시기 위하여, 전주시의 특별 배려로 지어주어 입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주에서 담양으로 행했다. 담양 메타콰이어라는 가로수 나무와 담양 녹죽원이라는 장관의 대나무 숲을 관람하고 이곳의 명물인 대동밥, 떡갈비, 대동주 등으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광주 Holiday Inn으로 이동하여 제 1박을 하였다.

10월 12일, 태백산맥 문화관과 조정래

조식후 보성의 유명한 녹차밭을 관광한 다음 태백산맥 문화관으로 이동하여 내부를 관람하였다. 금년이 조종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보성군 별교읍에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며 남도 여행 코스로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 본래 조정래의 아버지 조종현은 승려였으나 일제의 불교 황국화 정책에 따라 결혼을 하여 절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조정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계속 써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으며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직후 광주를 방문하여 계엄군의 참혹한 폭행과 살인 현장, 그 이후의 <다음면에 계속>

20회 66년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

김 용 재(66, 라스베가스)



고 문헌에 담긴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그동안 한국학 전문가들이 모여 최고 수준의 학술 연구에 매진해 왔다고 한다. 최근에는 지역학의 한계를 넘어 한국학의 세계화, 그리고 전문 연구자에 국한되지 않은 시민과 함께하는 한국학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의궤가 흥미로웠다. 의궤는 왕실과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마친 다음에 제작하는 보고서 형식의 책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혼례, 장례, 제사, 잔치, 세자, 왕후의 책봉, 궁궐 건축 등등의 기록을 위하여 도감을 설치하여 편찬한 다음 여러 곳에 보관 되었다고 한다. 대부분 내용이 실제 행렬대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말로만 들어오던 대동여지도가 그렇게 방대한 줄물렸다. 갑자본으로 가장 상태가 좋으며 완질로 갖추어져 가치가 높다 하였다. 영구 보관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 장치를 많이 보여 주었다. 저녁 만찬회를 위하여 Plaza Hotel로 오후 3시 반 경에 출발하였다.

만찬회

Plaza Hotel 22층 Diamond Hall에 106명의 동기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접수 테이블에서 행사 프로그램, 성기호 동문의 사진작품집, 이병훈 월간 잡지 그리고 유원하의 고급 타월 등 기념품들이 배부 되었다. Cocktail Hour가 이어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다운 인사들이 나누어 졌다. 반세기, 50년 만에 처음 만난다는 탄성을 지르는 감격적인 장면들이 여기 저기서 속출 되었다. 세월과 더불어 변한 모습을 서로 마주보며 위로의 말을 머금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대부분 반 백 이상의 노신사가 된 지금과 화창시절의 회상을 거듭하는 듯하였다. 서서히 취기가 분위기를 지배하면서 더욱 격양되었다. 이 만남의 환희를 영원하게 지속하자고 애원이라도 하고 있는 듯한, 아니면 이별을 벌써부터 두려워하는 연인간의 상봉처럼 화려하면서도 울적한 장면으로 보였다. 순서에 따라 만찬장으로 이동되어 문성무 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의례적인 공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작고한 19 동문들에 대한 묵념, 이병훈, 최순채 두 회장의 인사말, 경과 보고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45주년 행사에 수고한 이명희, 김진수, 문성무, 이병훈, 김용재 등에게 증정 되었다.

최영자 동기가 축배의 잔을 올렸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후기에 이렇게 건강한 여러 동기들의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 합니다. 앞으로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희망을 꿈꾸며 우리 동기 여러분의 99-

시작되었다. 걸쭉하고 윗트가 풍부한 이경희 동기가 분위기를 웃음바다 속으로 몰아갔다.

성기호와 조의열 동기가 준비한 slide show는 추억 사진 감상 시간이었다. 먼저 작고한 19명의 사진들이 화면에 동시에 비추어 질 때 모두들 숙연한 모습이였다.

마지막 특별 순서는 국민 코미디언 ‘뽀빠이 이상용’의 등장이었다. 73세의 고령이지만 아직도 건장한 체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대표적 코미디언으로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다. 이병훈 회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만찬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충청도 억양을 섞어가며 다양한 유머를 30분 동안 구사하여 우리를 연속된 폭소의 광장으로 몰아넣었다. 뽀빠이를 끝으로 긴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문 위원장이 다음 날의 일정 설명이 있었고 행사 종료를 선언하였다.

국내여행 (서해남해)

한진관광에서 주관한 3박/4일 국내여행이 10월 11일 8시에 시작 했다.

미국 48, 한국 16, 모두 64명 이었다. 김진수 동기가 수고하여 4일 동안의 지정 좌석을 배정하고 각 차량마다 담당자를 배정했다.

10월 11일, 새만금 방조제

본래 일정에는 없었으나 최순채 회장의 특별 요청으로 난색을 표하던 한진관광 김동현 그룹장이 절충하여 성사되었다. 서해고속도로를 따라 두 시간 이상 걸렸다. 현지에 도착하여 보니 바다를 질러가는 4차선 고속도로처럼 보였는데 이것이 방조제라고 하였다. 너무도 방대하여 전체 윤곽을 볼 수 없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새만금 방조제는 군산시 부터 부안군에 이르는 33.9km 세계 최장 방조제이며 기네스북에 등재 되었다. 방조제의 오른쪽은 바다이고 왼쪽은 간척지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양쪽 다 바다처럼 보였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앞바다를 연결하는 방조제는 완성되면 그 안에 간척 토지 291km2 (여의도의 140배), 호수(새만금호) 118km2를 만드는 계획이다. 1987년 대통령 출마자였던 노태우가 대선 공약으로 부터 시작 되었다고 한다.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총 30년이며 총 사업비가 4조 1,794억원 이라고 한다. 찬반 의견, 법정소송, 정치적인 이해관계, 환경 문제, 자금조달 등 많은 우려곡절 끝에 2011년 종합 개발 계획을 확정하여 진행 중이라고 한다.

새만금을 뒤로 하고 부안 맛집에서 별미 백합정식을 모두 즐긴 후 전주로 향 하였다.

〈전면에서 계속〉 상황들을 태백산맥의 집필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태백산맥은 여러가지 고발, 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법적 투쟁 등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005년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 졌다고 한다.

순천만 국제정원

곧 순천으로 이동하여 남도 순천만 국제 정원을 관람하였다. 여러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특징적인 theme을 가지고 정원을 만들어 보여주는 정원 박람회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웠다. Tram car의 ticket 청구에서 혼자만 외국인 경노라고 1000원을 더 내야 했던 동기가 속상한 표정이었다. “자네는 서양 사람처럼 잘 생각해 봐야”라고 위로의 거짓말이 튀어 나왔다. Tram car도 초만원 이었다. 자연 생태 정원에서 펼쳐지는 꽃과 정원수의 향연은 한국에서 온 세상을 조감해 볼 수 있는 별천지처럼 보였다.

김은한의 사랑방 이야기: 허황옥 왕비, 김수로왕 그리고 쌍어문 이야기

김은한 동기의 사랑방 이야기가 있었다. 그는 한국 역사학자들에게 인정 받는 사학가다. 지역이 옛날 가야국의 일부이기도 하여 김동문에게 특별 요청을 하였는데 지면상 자세한 내용은 'BostonKorea.com'에 들어가셔서 김은한 칼럼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여수 이순신 광장

이곳은 여수시 중화동 인근의 옛날 항구를 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여수 시민의 광장이라고 한다. 동상 아래에 민족의 태양이라고 쓰여 있는 이순신 장군의 웅장한 모습과 모조 거북선이 눈길을 끌었다. 실제 크기만했다는데 모두들 들어가서 이모저모를 구경 하였다.

이순신 대교

여수시와 광양시를 연결하는 이순신 대교를 조망하며 광양으로 향하였다. 장관인 이 현수교는 한국에서 가장 길고(2.26km) 해수면에서 높이는 세계 제일의 80m 라고 한다. 여기는 임진왜란 당시 노량해전이 일어났던 해협과 인접 하였고 그가 전사한 곳 이라고 한다. 두개의 주탑 사이의 거리(주경간)는 이순신 장군의 탄신년인 1545년을 기리기 위하여 1,545m로 설계 하였고 주탑도 270m로 세계 최고였으나 최근 불란서 미요교(343m)에 뒤진다. 그러나 남산(262m)이나 63빌딩(264m) 보다는 높다. 곧 광양 맛집에서 불고기 점심을 끝내고 남해대교를 지나서 금산 보리암으로 향했다.

남해 금산과 보리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인 남해 대교를 지나면 한국 5대 섬 중 하나인 남해도로 연결된다. 금산(681m)은 삼남 제일의 명산으로 한려 해상 국립공원의 유일한 산악공원으로 절경을 이룬다. 신라 원효대사가 이곳에 절을 세워 보광사 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조 이성계가 젊어서 백일기도를 하여 후에 조선왕조를 개국하게 되자 영세불망의 명산이라 하여 온산을 비단으로 두른다는 뜻으로 금산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정상에는 한국 3대 기도처의 하나인 보리암에 올라가서 장엄한 전경을 볼 수 있었다. 보리암에서 보는 일출이 절경이라고 하며 바라보이는 시야가 특별하였다.

독일마을

다음으로 찾은 곳은 많이 들어오던 독일마을 이었다. 1960년대 한국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로 떠나야 했던 과묵 광부와 간호사들이 귀국하여 정착한 마을이다. 그들이 벌어들인 소중한 외화는 피땀과 눈물어린 수고의 댓가였다. 그 종자돈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

붉은 지붕과 하얀 벽이 아름다운

34채의 독일풍의 마을이 아주 조용해 보이고 전망이 수려했다. 과묵 전시관에는 한국 광부들의 소장품 250 여점과 간호사들이 사용한 의료기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짙막한 홍보영상에는 광부들, 간호사들의 눈물겨운 장면이 여러 번 나왔다. 당시 현지를 방문했던 박정희 대통령 부부와 광부들, 간호사들, 다 함께 눈물바다가 된 당시의 환영회의 장면은 너무도 감격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 되었다. 과묵 광부들 중에서 70명이나 희생되었다고 하였다.

석별의 Buffet Dinner

거제 리베라 호텔에서 집을 풀고 푸짐한 호텔 Buffet 저녁 식사를 시작하였다. 여행의 마지막 저녁 만찬이라든지 한바탕 즐겨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술잔이 오고가고 가라오케와 one-man DJ가 흥겨운 가락의 경음악을 내보내고 있었다. 김의식 동기가 첫 번으로 나가서 열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곧 뒤따라서 동문 가수들의 신청곡이 계속 밀렸다. 부부 합창, 흘러간 유행가, 가곡 등을 마구 신나게 불렀다. 김경세의 ‘옛동산에 올라’는 귀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진수는 자기 차례인줄 알고 두 번씩이나 나갔다가 헛탕을 치기도 하였다.

동수, 영자, 한기, 웅길, 경희, 명희, 양수, 순채, Mrs 이병훈, 명선, 규용, 철, 상준, 발식, 충규, 삼국, 진호, 경희, 일성, 성무, 건춘, 우신, 은한, 수길, 재선, 용재 등등 거의 전원이 목이 터지도록 불렀다. 정정욱, 신광일 부부의 신나는 노래에 노규상, 윤낙승 부부는 그들의 특기인 춤을 췌는 공간이었지만 아랑곳 하지않고 사뿐사뿐 신나게 추었다. 간간 삽입되는 이경희의 입담은 연속 폭소를 자아냈다. 거의 모든 동기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

어느 테이블은 단체로 여러 명이 나와서 합창을 하였다. 이렇게 열광스런 동기파티는 처음이었다. 이번 행사의 climax 였다.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신바람 나게 놀아 본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우정과 헤어짐을 앞둔, 옛갈리고 애석한 감정이 표출 되었다. 이경희의 제안으로 마지막에는 ‘만남’이라는 노래를 합창하며 손에 손을 잡고 좌우로 연속 움직여가며 열창을 했다. 우리와 같은 박수와 상기된 모습으로 finale를 장식 하였다.

10월 14일, 미륵산과 케이블카

조찬을 마치고 통영 미륵산에 위치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타기 위하여 서둘렀다. 쾌적한 곤돌라에서 왼편은 통영항, 오른편으로 한려수도 절경을 감상하며 하늘을 날아가는 시간은 짜릿한 흥분과 벅찬 감동을 선사했다. 한산대첩 전망대에서는 충무공이 한산대첩을 이끌었던 한산섬 앞바다가 보였다. 사방으로 둘러보고 다시 내려왔다.

Guide 아가씨들이 제공한 통영의 명물인 김밥과 꿀빵은 별미였고 시장 옆에 위치한 동피랑 벽화 마을을 잠깐 보았는데 생각보다 실망스러웠다.

이날 오찬후 주차장에서 한 귀부인을 만났는데 오라버님을 추적하여 찾아온 노규상의 여동생이었다.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줄 먹거리 봉다리를 푸짐하게 준비해 오셔서 모두 즐겼다. 시간이 촉박하여 서울로 직진 하였다. 예정보다 늦게 강남에 도착했다.

미주 동기 최순채 회장이 마지막 저녁에 크게 한턱을 냈다. 모두들 시장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였다. 좀 더 즐기고 싶었으나 시간이 늦어졌고 긴 여행에 피로해 보였다. 그러나 굳은 약속으로 다음을 기약하면서 헤어졌다.

끝으로 행사 프로그램 제작에 도와준 이병훈 회장, 문성무 준비위원장, 최순채 회장, 민발식, 김진수, 정양수,

조의열, 성기호, 이명희, 그리고 한진관광과 Union Printing의 황사장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지량 속 이야기들

Bus 1호, 차장 민발식

1호차 버스에는 비교적 점잖은(?) 손님들만 배정되어 다른 두 버스타입 워자지컬 하지를 못하였다. 대신 젊은 아줌마 guide가 여러 방면으로 박식하여 방문하는 곳마다 각 지방의 역사와 지리는 물론 숨겨진 재미있는 야사(?)까지 곁들여 들려주어 여행의 흥미를 돋구어 주었다. 그래도 마지막 날 서울로 돌아오는 긴 여정 동안엔 말문들이 트여 김경세, 노규상의 어지럽병(?) 강의, 김은한의 우리나라 고대 역사 이야기, 최순채가 오래전에 벼락 맞고 살아남은(?) 이야기와 최근의 sky diving 경험담들이 터져 나와 흥을 돋구었다. 그러자 배우자들도 질세라 입을 열어 Mrs. 정정욱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기억에 남는 경험담과 Mr. 김한기(영자 부군)씨가 공포의 9.11 사태 때 현장인 World Trade Center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오랜 뒤에 다시 만나자!

Bus 2호, 차장 노재선

내 평생 반장은 고사하고 그 흔한 즐반장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여행에 제2호 버스차장으로 임명된 연락을 받고 가벼운 흥분상태로 3박4일 버스에 올랐다.

오붓한 21명의 동문 가족들과 멋진 가을여행을 위하여 아름다운 추억과 많은 미소를 듬뿍 주자고 강조하면서 서울을 떠났다.

곽일성은 ‘노후의 인생철학’을, 정상국은 성대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담을 그리고, 박웅길 부부는 추억 이야기와 duet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다. 시간이 있으면 준비해온 명곡 감상도 했다. 첫 번째 음악은 우리가 좋아하는 G선상의 Aria를 먼저 들으면서 박학한 김진호의 해설이 흥미로웠다. 김의신의 joke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조용했던 충규의 노래 소리가 너무도 구성했다.

어느 사모님은 항상 밝은 미소로 화상 앞에서 “대충대충 해”라고 하여 번번이 모두를 웃겼다. 안경희는 노후 건강을 위하여 맨손체조의 특별 효능에 대하여 강조 하였다. 이병훈은 “장수를 하려면 신앙행할, 취미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Bus 3호, 차장 김진수

Bus C의 사회자 이경희 동문은 재치와 유머를 곁들여 여행을 재미있게 했음은 물론 방방곡곡의 볼거리와 먹거리에 일가견이 있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식탁 선택에 큰 도움을 줬다. 또한 중고등 학창 시절부터 익혀온 미국 팝송을 편집한 파일을 차내에서 틀만 있으면 듣게 하여 더욱 흥미로웠다. 재담가인 Mrs Hwang이 익살스런 표현으로 남편의 흥과 자랑을 뒤섞어 놓아 폭소를 연발 시켰다.

나(진수)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직시할 때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DNA를 가졌는가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항상 피력 하였다.

농담 골목

몇년 전에 의과대학 후배 한 사람이 60세 회갑 잔치를 차렸다. 그 모임에 갔더니, 후배가 와서 인사를 하고 “제가 오늘 60세가 되었습니다. 온 몸에 아픈지 않은데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노용면)

일기가 몹시 고약하고 천둥이 치는 어느 날, 독실한 신자가 “전지 전능한 분, 저는 벼락을 맞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노용면)

새 집



김병오 (69)

새집의 동그란 입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날아드는 새를 기다리며 다시 바라보곤 했다. 나만의 사랑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오래된 마음인지 누구의 손길인지 새집은 돌려져 동그란 입구는 보이지 않고 먼 곳 내가 바라보는 숲을 향해 뒷모습으로 변했다.

새집은 비스듬히 눈과 머리가 되어 하얀 목덜미를 내놓고 홀로 물든 세상 밖을 바라보며 먼저 내가 되어 同行하고 있었다.

둘의 시선이 멀리서 만나 행복했다.

그때 숲에서 훨훨 새가 날아왔다.

어렵다 어려워

김태형 (63, 조지아)

물리학은 어려워 상대성 원리 양자역학 빅뱅 ...

문학도 어렵긴 마찬가지 카프카의 변신 괴테의 파우스트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 ...

철학은 더 어렵네 노자의 無爲 파스칼의 광세 사르트르의 실존 ...

이런 것들은 또 뭐지? 어디서 들었지? 사월은 잔인한 달 色即是空空即是色...

To be or not to be 그리고 멀리도 할 수 없는 Computer, Smartphone, Digital wrist products 어디가나 digital, digital, digital ...

세상은 온통 어려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내게 가장 어려운 건 아마도 너와 나와의 인간 관계가 아닐런지

* 지난호에 한자가 누락되어 다시 게재합니다.

66년 친구들 북해도를 가다

鄭良秀(66, 애틀랜타)



2016년 10월 10일, 서울의대 66년 class는 서울 Plaza Hotel에서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바로 다음날 시작된 3박 4일의 국내여행에 이어, 10월 16일 23명의 우리 동기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모였다. 두 시간 반 飛行 후에 신치토세(新千歳)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3박4일의 북해도 bus 여행이 시작되었다.

홋카이도(北海道)는 남한의 80% 면적에 인구는 10%가 조금 넘는다. 활화산과 온천으로도 유명하지만, 자연경관이 秀麗하여 섬의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더운 날이 많지 않아서 일본에서는 각광받는 여름 휴양지로 손꼽힌다. 홋카이도의 선주민(先住民)인 아이누(アイヌ)족은 일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일본 본토인의 주를 이루는 야마토(大和) 민족과는 확연히 다르다. 體毛가 많으며 눈이 깊고 콧날이 오뎅 같은 외모 때문에 코케소이드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DNA를 사용한 형질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古몽골로이드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러시아의 南進에 맞서기 위한 요충지로 에도시대(江戸時代) 이후 본토인들이 이 곳에 정착하면서 아이누족은 서서히 설 땅을 잃게 되었다. 18세기 초에 약 8만 명으로 추산되던 이들이 현재의 공식적 통계로는 2만 5천으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혼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극심한 인종차별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의 혈통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북해도의 개척사(開拓史)를 보면서 느끼는 바지만, 선주민의 대량학살이나 학대와 쇠퇴의 역사가 미국 서부의 경우와 놀림게도 닮은꼴이라는 생각에 마음 아프다.

지고쿠다니 地獄谷

처음 관광지는 아타미(熱海), 벳푸(別府)와 더불어 일본의 3대 온천지역으로 손꼽히는 노보리베츠(登別)였다. 엄청난 양의 온천수로 유명한 이 자그마한 도시는 온천마을답게 주변이 온통 온천호텔이다. 지고쿠다니(地獄谷)는 이 곳의 하일라이트로 활화산 분화구이며 유황 냄새가 자욱한 골짜기이다. 수많은 분화구에서는 증기가 나오고 있고 황막하기가 이를 데 없다.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이런 곳일까? Yellowstone 국립공원 만큼은 아니지만 간헐천(geyser)도 보인다.



도야 洞爺 사이로 サイロ 전망대

사이로 전망대는 도야코(洞爺湖) 대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절경의 장소이며, 우수잔(有珠山), 쇼와신산(昭和神山), 서쪽으로는 요테이잔(羊蹄山), 루스츠, 니세코 등 유명한 산과 산맥을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이다. 칼데라 호수인 도야호는 둘레가 50km, 평균 수심이 117m, 거의 원형인 담수호다. 호수 중앙에는 오시마(大島), 간인시마(観音島) 등 모두 4개의 작은 섬들이 모여있고, 이들의 생성은 호수 속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 때문이라고 한다. 구름을 목에 걸치고 있는 요테이잔(羊

蹄山 1,898m)이 저 멀리 보이는데, 외모가 닮았다 해서 '홋카이도의 후지산(富士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전망대에서 왼쪽으로 산 능선(稜線)을 자세히 보면, 건물이 하나 가물 가물 보이는데, 'The Wind Hotel Toya'라고 한다. 2008년 G8 정상회담이 이 곳 도야에서 개최됐을 때 정상들이 묵었던 숙소였다고.

쇼와신산 昭和神山

원래 보리밭이었던 곳에 지진과 함께 2년에 걸쳐 300m 정도의 용기가 출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때의 일이었다고, 이름이 암시하듯, 쇼와(昭和)시대 때 새로 생긴 산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의 우체국장이었던 미마쓰 마사오(三松正雄)가 흥미를 가지고 매일 관측하면서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었는데(미마쓰 다이어그램), 아직도 이 산허리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라모라 피어나고 있다. 미마쓰의 공적을 높이 사서 이 산기슭에 그의 동상과 기념관이 세워져 있으며, 관측기를 들고 서있는 그의 동상 받침돌에 새겨진 '麥園生山'이라는 새까만 글씨가 돋보인다. 쇼와신산은 학술적으로도 귀중한 산이며, 국가지정 특별 천연기념물로 되어있다. 용암의 응집력이 강해서 용암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고 땅 속에서 굳어버린 다음, 그 용암의 힘으로 땅이 용기하는 활화산을 베르니테형 활화산이라 부른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쇼와신산이 세계 유일의 베르니테 화산이라는 사실이다. 용기된 부분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과거의 토양이 용암의 열로 구워져 벽돌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용암의 온도가 하락하고, 또 침식 때문에 이 산의 키는 점점 낮아져가는 추세라 한다.



도야코 洞爺湖 유람선 탑승

다음날 아침 도야코 유람선을 타고서, 맑은 호숫물, 맑은 바람과 함께 주위에 펼쳐지는 절경을 한 시간 정도 즐길 수 있었다. 도야코(洞爺湖)는 화산분화로 인하여 형성된 칼데라 호수이고, 둘레가 50km이며 우리나라 칼데라 호수인 백두산 天池의 둘레가 14km임을 감안할 때,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다. 겨울에도 얼지 않으며 일년 내내 아름답고 깨끗하기로 유명하다.

오오누마 大沼

오오누마(大沼)는 히코다테 근교에 있는 휴양지이고 산과 숲, 호수로 둘러싸인 국정공원(國定公園)이 있다. Camping, boating이나 cycling 등 야외 스포츠와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우리 일행은 산책을 택하였다. 엄청 넓고, 여러 개의 작은 호수들과 arched bridge도 많아 산책로가 아름답다.

히코다테로 방향을 잡기 전에 한 곳을 더 들렀는데 홋카이도(北海道) 콘부관(昆布館)이라는 곳이다. 콘부(昆布)는 다시마의 일본말이고, 일본인들이 우리보다 더 선호하는 것 같다. 극장과 비슷한 dome theater에서 다시마의 채취와 가공을 담은 동영상 거의 누운 자세로 관람한 다음, 바

로 옆 콘부 상점으로 들어갔다. 수백 가지 상품이 진열되어있고, 맛볼 수 있는 sample도 푸짐하였다. 조금 달달한 젤리 상품이 그래도 내 입에는 넘버 원 초이스! 통상적으로 우리는 국물을 우려낼 때 다시마를 많이 쓰지만, 일본인들의 사용은 훨씬 다양한 것 같다.

고료가쿠 五稜郭

히코다테(函館)에 진입하자 고료가쿠를 먼저 들렀다. 원래 旅程에는 고료가쿠 방문이 들어있지 않았으나, 버스안에서 가진 우리끼리의 presentation을 듣고 있던 가이드(ガイド)의 특별 배려였다. 이름이 암시하듯 성곽과 해자(壕)가 5각 별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양식의 서양식 성곽은 일본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히코다테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城이다. 이 성은 에도(江戸)시대에 러시아의 南進에 대비하여 단가쿠(蘭學) 학자인 다케다 아야사부로(武田斐三郎)가 설계, 7년의 공사 끝에 1864년 완공되었다. 蘭學이란 네덜란드(和蘭)를 통해 들어온 유럽의 학문, 기술과 문화를 포괄해서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던 고료가쿠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때 유신군과 바쿠후군(幕府軍) 사이에 일어난 마지막 내전, 히코다테 전쟁(1868-1869)의 무대가 되었다. 지금은 성 안쪽으로 공원이 조성되고 벚꽃나무가 많아서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공원 입구에 107m의 전망대가 세워져 있어서 고료가쿠의 전경뿐 아니라 히코다테市와 쓰가루(津輕)해협의 파노라믹한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



히코다테는 약 150년 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외국에 개방한 도시 중 하나다. 모토마치(元町), 당시 가장 먼저 번성했던 지역으로 지금도 교회들과 서양관 등의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다. 이국적인 거리 풍경과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을 바라보면서 조약돌 거리를 1km정도 걸었을까. 보슬비를 맞으면서, 이 중의 한 곳이 하리스토스(ハリストス) 正教會. 이 러시아 풍의 하얀 건물은 러시아의 주교 니콜라이가 1859년 처음 세운 교회로 러시아 영사관의 부속 성당이었다. 히코다테山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에 교통이 막혔다. Back out할 수 있는 틈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 거북이 걸음에 지쳐버린 우리는 예정했던 히코다테山 로프웨이 관광을 과감히 포기하고 차를 돌릴 수 있는 지점에 이르자마자 호텔로 직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비는 그쳤고 내려오는 길 커브를 돌때마다 잠깐잠깐 차창으로 보이는 휘황찬란한 히코다테의 야경으로 만족해야 하였다.

오타루 小樽

히코다테에서 삿포로로 이동하려면 bus로 장장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도중에 ski resort로 유명한 루스츠(留壽都)에 들러 점심을 먹고 항구도시 오타루에 도착하였다. 오타루는 홋카이도가 개척되기 시작한 1800년대 후반부터 삿포로를 연결하는 항구도시로 발전하였다. 과거에는 작은 배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물자를 운반하던 상업기지였지만, 항구가 현대화되어 큰 배들이 부두에 정박할 수 있게 되면서 오타루 운하는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했다. 지금은 오타루를 관광지로 재개발하여 더 큰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운하를 연해 길게 늘어선 창고

들은 레스토랑이나 상점으로 운영되고, 운하 주변은 가스등과 유리제품 등 좋은 구경거리가 많다. 오타루의 대표적인 토산품인 유리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타이치 유리공방(北一硝子館)을 들러서 구경하였다. 1901년에 창업한 이래 오타루에서 가장 유명한 유리공예 상점이 되었고, 규모 또한 놀랍다. 이번 여행의 기념품으로 빛깔 무늬가 새겨진 짙은 코발트색 glass를 하나 샀다. 집에 가서 curio에 넣어두면 괜찮을까?



오타루 오르골당 앞에 서있는 커다란 증기시계는 매시 정각마다 증기를 내뿜으며 시간을 알리고 15분마다 멜로디를 연주한다. 오르골이란 네덜란드語 orgel의 일본식 발음으로 music box라고 보면 되겠다. 오르골당에 들어서면 수없이 많고 다양한 오르골들이 전시되어있고, 2천만 엔의 가격표가 붙어있는 비싼 골동품 오르골도 있었다.

삿포로 札幌

삿포로에 들어와 홋카이도 구청사(舊廳舎)로 향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일본정부의 홋카이도 개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든 이 청사는 본명이 홋카이도 도청구본청사(北海道廳舊本廳舎), 붉은 벽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삿포로 시민들에게는 "아카렌가 赤れんが" 라는 애칭으로 통한다. 이 건물은 1888년에 세워진 미국식 건물이며 미국 마사츄세츠 주 청사의 축소판이다. 건물 내부는 일반에게 무료 개방이고 홋카이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2층에는 역대 도시사의 사진이 걸려 있으며, 삿포로 農學校 창립에 공이 크고, 초대 교감을 지낸 William Smith Clark 박사가 고국으로 떠나는 장면을 그린 유화도 눈을 끌었다. Clark 박사는 학생들에게 "Boys, be ambitious!" 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한다.

구청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계탑은 '가이도 상'의 설명을 들으면서 차창을 통해서만 보았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주위의 고층 빌딩에 파묻혀 있는 이 시계탑은 원래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이었던 삿포로 農學校 건물에 미국에서 주문한 시계를 설치하여 만들었다고(1881). 아직까지도 정확한 시각을 알려주고 매시 정각에 종을 친다고.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도청소재지이자 제일의 도시로서 인구는 2백만 정도다. 메이지 유신 이후 홋카이도를 개척한다는 메이지 정부의 정책에 따라 1869년 개척사(開拓使)를 파견, 황무지 개발에 착수하면서 일본인들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1871년 미국 건축가의 설계로 삿포로가 탄생하였다. 그 뒤 1950년부터 시작한 삿포로 눈 축제와 1972년에 개최된 제 11회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이 도시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북위 43도 선에 위치한 지역이 가장 물맛이 좋다는데, 미국의 밀워키, 독일의 뮌헨, 그리고 삿포로가 거기에 속한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이면 시내 한복판의 오도리 코엔(大通公園)에서는 일본의 내로라하는 유명 맥주회사들이 주관하는 맥주축제가 대대로 열린다. 이 공원은 맥주축제뿐 아니라 2월에는 눈 축제, 5월에는 라일락 축제 등이 벌어지는 시민의 문화공간이다. 우리가 묵은 Royton Hotel과 지근거리고 '가이도 상'의 권유도 있어서 다음날 아침 이 공원을 한 번 거닐어(다음면에 계속)



닭피생

이덕승 (60, 남가주)

2017년 새해가 밝았다. 이 해는 丁酉年(음력)으로 十二支干 중 닭띠에 해당한다.

닭이란 아주 부지런해서 먼저 울음으로 새벽을 알려주기 때문에 옛 우리 조상들은 어둠과 악귀를 몰아내고 광명을 안겨다 주는 희망의 동물로 여겼다.

나는 1934년 1월 1일에 태어났는데 음력으로는 1933년(癸酉年) 11월 16일이므로 닭띠생이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닭고기를 무척 좋아한다. 내 나이 다섯 살 때부터인가 내 생일날 밥상에는 나만을 위한 특별한 메뉴가 등장했다. 나의 식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시장 바닥을 누비며 골라 온 탐스러운 어린 암탉을 작은 가마솥에 넣고 군불을 지피어 알맞게 익힌 다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퐁퐁을 손수 찢어주시면서 “오늘은 네 생일이다. 건강하게 자라서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어야 해.”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내 귀에 남아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토실토실한 갈색 토종닭에서부터 인삼과 대추, 마

늘을 넣고 쪽 고와 낸 영계백숙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정성 어린 생일선물은 계속되었다.

나는 닭띠 생이다. 그래서 그런지 닭들의 시늉을 무의식적으로 행할 때가 허다하다. 닭들이 모이를 쪼아 먹기 전 취하는 자세를 유심히 살펴보면 먼저 두 발로 번갈아 가면서 땅을 파헤쳐 흩어놓은 다음 그 속에서 먹이를 골라 먹는데 나 역시 그릇에 수북이 담긴 나물 종류나 배추김치를 먹을 때마다 먼저 젓가락으로 그릇 한가운데를 휘젓는 나쁜 버릇이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반찬 그릇의 모양새가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반찬 파편들이 밥상 주변에 떨어져 식탁의 분위기를 망쳐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니, 너는 닭띠 생이 아니랄까 봐 그렇게 파헤쳐가며 먹느냐?”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의 꾸중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렸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듣게 되는 아내의 잔소리에는 그 옛날 어머니의 충고를 귀담아듣지 못한 나의 나약성을 탓하게 된다. 이러한 닭의 습성 때문인지 나에게서는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의욕보다는 분산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구두쇠 영감 되기에는 턱도 없고 보니 닭띠생으로서 감수하고 살아 가야 할 숙명인지 모르겠다.

나는 닭띠생이다. 나의 허물과 모자람을 보완하고 보다 더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닭의 상징적인 美德의 敎訓을 내 생활의 지표로 삼고 있으며 또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닭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다섯 가지 美德를 살펴보면,

첫째, 머리에 달린 뿔은 文이고 뿔째, 발톱은 武이며 셋째, 먹이를 먹을 때 서로 다투지 않는 것은 仁이요 넷째, 싸울 때 물러서지 않는 것은 勇이며 다섯째, 어김없이 새벽을 알려 주는 것은 信이라 하겠다.

83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닭의 해를 맞으니 감회가 새로워진다. 어미 닭을 에워싼 병아리들이 한데 모여 정답게 모이를 쪼아 먹는 모습은 평화롭고 아름답기만 하다. 丁酉年 새해를 맞아 ‘꼬끼오! (꼭 이겨요!)’ 하고 목청을 돋우어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닭의 부지런함과 닭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五德(文, 武, 仁, 勇, 信)의 교훈을 밑거름 삼아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는 악연(惡緣)의 인물이다.

Horace Capron(1804-1885)은 전직 미국 농무상으로 북해도개척사(北海道開拓使)로부터 농업기술 고문으로 초청받는다. 미국의 선진농법을 도입함으로써 현대화된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온 인물이다.

드디어 신칸센(新幹線)이 금년 3월 24일 북해도에 개통되었고, 축하했던 흔적이 거리 여기저기서 보인다.

《Epilog》

쌀쌀할 것을 예상하고 옷을 준비했으나 10월 중순의 날씨가 계절답지 않아, 지구온난화를 다시 한 번 실감하였다. 처음 이를 받은 현대식 호텔에 들어서, 유카타(ゆかた 浴衣)를 입고 돌아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온천욕도 하였다. 실내 온천은 한국과 비슷하고,

전쟁 시인 윌프레드 오언

정유석 (64, 북가주)

윌프레드 오언(Wilfred Owen, 1893-1918)은 제1차 세계대전 때 활동한 영국인이다. 전쟁중 발표된 시는 보통 전쟁을 고무하거나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 많은데 오언의 시는 죽어서 뒤뜰어진 전우의 시체를 옆에 두고 싸워야하는 참호전의 비참함, 독가스전의 공포, 전쟁의 허망함 등을 노래했다.



“저 병사를 양지바른 곳으로 옮겨라. / 햇빛은 그를 부드럽게 깨웠다. / 고향에서는, 씨 뿌리는 일이 남아있다고 속삭이면서 / 프랑스에 와서도 눈이 쌓이는 오늘 아침까지 / 언제나 태양은 그를 깨웠다. / 이제 무엇이 그를 깨울수 있는지 / 저 친절한 태양은 알고 있으리라.

태양이 어떻게 씨앗을 싹트게 하는지 생각해보라. / 차가운 별의 진흙도 깨운 적이 있다. / 그토록 어렵게 만들어진 팔다리, 아직도 민감하고 따뜻한 허리 / 너무 굳어 움직일 수 없는가? / 이렇게 되려고 진흙이 크게 자란 것인가? / 오! 무엇이 이 얼빠진 햇빛으로 하여금 애를 써서 / 대지의 잠을 깨우게 했는가?”

(허무, Futility, 전문)

오언은 영국의 오스웨스트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철도공무원으로 자주 전근을 다녔다.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이어서 오언은 신실한 성공회 교인으로 자랐다. 어려서 성경과 함께 쉐리나 키츠 같은 낭만파 시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런던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 포기했다. 던스덴 지역에서 사제 보조 일을 하면서 레딩 대학에서 공부를 마쳤다.

졸업 후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외국 어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을 하던중 전쟁이 발발하자 프랑스 군에 입대할까 고려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와 보병 장교학교에 입학했다. 7개월에 걸친 훈련 후에 소위로 임관되어 맨체스터 연대에 배치된 후 1917년 1월 프랑스에 형성된 서부전선으로 갔다.

그 유명한 솜므 전투는 지독하게 추운 날씨에 격렬하게 벌어졌다. 그는 근처에서 박격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포탄이 만든 구덩이에 빠져 며칠간 정신을 잃었다. ‘셸쇼크’(Shell Shock)란 진단을 받고 에든버러에 있는 크레이그록하르트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지금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뇌진탕’(Concussion)과 ‘외상 후 스트레스

은천수를 한국에서는 덥혀 써야 하는 반면, 북해도에서는 덥힐 필요가 없다고 들었다.

마지막 날 저녁은 대게(big crab) 특식으로, 더구나 무제한 refill로,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우리가 돌아다니던 지역이 광활한 북해도의 극히 일부인 서남쪽 corner에 불과했으니 나머지는 다음 기회를 보기로 하고, 버스 내에서 사랑방 얘기 프로그램도 있었다. Microphone을 바꿔가면서 자유 topic으로 진행되었고, 博學多識한 건 그러려니 치부한다 해도 그 지식의 깊이에 있어서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와이당(わいだん 猥談) 또한 빠질 수 없지! 60년지기 친구들과 같이하는 여행은 언제나 즐겁고 정겹다.

장애’(PTSD)에 해당할 것이다.

군병원에 환자로 있을 때 주치의는 치료의 수단으로 오언에게 그동안 경험한 것들, 특히 꿈 내용을 시로 표현해보라고 권고했다. 당시 그는 에든버러 문단의 작가들과 사귀었는데 그중 한명이 시인 시그프리트 사쉴(Sigfried Sassoon)으로 오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무기한의 재택근무가 가능한데도 오언은 1918년 7월 자원해서 프랑스 전선으로 원대 복귀했다. 사쉴은 오언의 발에 상처를 내겠다고 위협하면서까지 그의 복귀를 맹렬하게 반대했다. 이를 안 오언은 프랑스에 도착한 후 이 사실을 사쉴에게 알렸다.

1918년 11월 4일 그는 상브르-와즈 운하 도하작전에서 전사했다. 종전을 의미하는 휴전일 서명을 바로 한주일 앞두고였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중위로 진급했다. 휴전일에 종전을 축하하는 교회의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그의 사망소식이 어머니에게 전달되었다.

‘전사한 젊은이들을 위한 송가’(Anthem for Doomed Youth)는 그의 대표작이다. 이 시는 후에 영국 작곡가 벤저민 브리튼이 ‘전쟁 레퀴엠’을 작곡할 때 가사로 사용되었다.

“가축처럼 죽어간 저들에게 조종은 어떤 것인가? / 오직 소총의 괴물 같은 분노 / 오직 장총이 발사하는 빠른 총소리만이 / 그들의 성급한 기도를 잠재울수 있으리라. / 이제 그들을 조롱하는 소리는 없다. 기도나 종소리도 없다. / 애도의 소리조차 없다. 저 합창 소리를 제외하고는 / 울부짖는 포탄들의 날카롭고 정신을 빼는 합창 / 또 슬픔에 잠긴 출생지에서 부르는 나팔 소리 말고는.

그들 모두를 잘 보내기 위해 어떤 촛불이 들려지겠는가? / 소년들의 손이 아니라 눈동자에 들려서/작별을 고하는 성스러운 불길로 빛나리라. / 소녀들의 이마에서 발하는 창백함이 관을 덮는 천이 되리라 / 그들이 손에 든 꽃은 참는 자들의 슬픔이 될 것이요 / 천천히 내리는 황혼은 내려지는 차양이 될 것이라.”



오천 년 기간간 세월 찬란했었다는 말보다는 굴욕적이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거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슬퍼진다 단 한번도 남의 나라 쳐들어가 본적 없으나 무수한 침략을 받아왔으면서도 나라 지킬 생각은 없고 돌로 갈라져 저희들끼리 죽자 살자 싸박질 하고 있는 판

주어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보단 주는 것 안 받으면 바보란 신념이 굳고 굳어져 퍼질 줄 모르다가 김영란 법을 만드니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법석들 돌아갔었다는 결론 내 슬픔은 깊어만 간다

소수

나는 빌 데도 없는데

이수인 (63, 남가주)

눈을 꼭 감아도
알밴도록 예쁜
한송이 장미
너 때문에 나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구나
어떻거지
세월에 밀려
나는 가만히 네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걸
꽃 신령께 빌어 볼까

빛의 영상이 내 비취는
호수인양
밴도록 잔잔한 당신의 마음
별들이 잠든 고향처럼
따뜻한
내 의지의 대지
꽃보다 아름다워라
나는 더오래 당신 곁에 있어야겠어

어떻거지
나는 빌 데도 없는데

(전면에서 계속) 보았다. 동상 두 개가 눈에 띄는데,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와 Horace Capron의 像이다.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 1840-1900)는 일본제국의 제2대 총리요 육군 중장이었다. 1870년부터 홋카이도의 개척 장관으로서 개척을 지휘했고, 구 막부군과의 최후 전투인 하코다테 전쟁(1868-1869)을 지휘하여 승리로 이끈 무장이다. 적장인 에노모토 다케아키(本武揚)에게 항복을 권하여 성공했고, 戰後에는 에노모토의 구명에 또 성공, 그를 홋카이도 개척사업에 重用하였다. 1877년 故意로 운양호(雲揚號)사건을 일으켰던 일본을 대표하여(전권변리대신),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한 장본인이다. 자국으로 바서는 애국자일지 몰라도 우리와

는 악연(惡緣)의 인물이다. Horace Capron(1804-1885)은 전직 미국 농무상으로 북해도개척사(北海道開拓使)로부터 농업기술 고문으로 초청받는다. 미국의 선진농법을 도입함으로써 현대화된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온 인물이다. 드디어 신칸센(新幹線)이 금년 3월 24일 북해도에 개통되었고, 축하했던 흔적이 거리 여기저기서 보인다. 《Epilog》 쌀쌀할 것을 예상하고 옷을 준비했으나 10월 중순의 날씨가 계절답지 않아, 지구온난화를 다시 한 번 실감하였다. 처음 이를 받은 현대식 호텔에 들어서, 유카타(ゆかた 浴衣)를 입고 돌아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온천욕도 하였다. 실내 온천은 한국과 비슷하고,

명의(名醫)



노영일 (68, 시카고)

잠자리에 들려고 이불을 펴고 있는데 누가 보건소 문을 요란하게 두드려댄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한 사내가 초조하게 서있다. 무슨 사연이냐고 물으니 아내가 이를 전 출산을 했는데 아직 후산이 없고 열이 불덩이같이 나며 눈을 까뒤집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꼭 죽을 것만 같아 부랴부랴 의사선생님을 찾아 왔단다.

어이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면 큰 병원에 데려가야 될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읍내에 나가는 버스는 하루에 한번 들어오고 이런 밤중에는 택시를 불러도 오지를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읍내까지 나가자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전에 꼭 죽을 것만 같다고 한다. 할 수 없이 주섬주섬 필요할만한 의료기구와 약품을 왕진가방에 대강 챙겨 넣고 사내를 따라나섰다.

밤은 교교하고 어두운데 반쯤 찬 달빛이 주위를 제법 흰하게 비치고 있었다. 50미터쯤 가니 신작로가 끊어지고 깎아 세운 듯한 절벽위로 철교가 있는데 내려다보니 아찔아찔하게 현기증이 날 정도의 높이였다. 건너가자면 죽히 이삼십 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 긴 철교였다.

사내는 철교를 건너갈 심산인양 그위로 걸어 올라간다. 그러다가 기차가 오면 어떻게 거냐고 물으니 그래도 급하니 어쩔나는 눈치다.

다른 길은 없냐고 물으니 강 상류로 올라가면 물이 낮은 곳에 징검다리 있는데 그리로 가자면 30분은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철교는 못 건너 가겠으니 시간이 더 걸려도 돌아가자고 했다. 사내는 할 수 없다는 듯 철교에서 내려서 제방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사방은 고요하고 풀벌레 소리만 찌르르 찌르르 하는데 가끔가다가 후루룩하며 무엇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소름이 오싹 끼쳐 혹시 뱀이 아니냐고 물으니 이런 밤중에 뱀은 없단다. 철면부지의 사내를 따라가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겁도 났다. 사내의 뒤 발꿈치만 보고 따라가자니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갔다.

군사정권의 서슬이 퍼런데 수련의들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했다 다음날로 무의촌으로 내몰렸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라 하지만 파업에 대한 보복임이 분명했다.

집에는 잣 돌을 지난 딸아이가 있었고 아내는 쌍둥이를 임신하여 만삭인 몸이었다. 취프 레지던트로 할일도 많고 보드시험준비도 해야 할 때다.

며칠간의 말미도 주지 않고 내일 당장 떠나란다. 날벼락을 맞은 듯 난감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정부 관리들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몸만 가서 인술만 퍼면 된다고 했다. 여러분들 같이 높은 의술을 가진 분들이 현지에 도착하면 열렬한 환영은 물론 모든 편의를 다 보아줄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못가지와 이부자리를 싣고 파리를 챙겨들고 생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오지 산골을 찾아갔다.

구세주가 온 듯 환영을 받을 줄로 생각했던 기대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다. 말단 지방공무원

들의 관료주의, 불친절, 무관심은 서울 뽕칠 정도였고, 환영은 커녕 그들에게 나의 출현은 도리어 한 가지 귀찮은 일이 더 생겼을 뿐이며 아예 외면을 하려고 들었다.

임지에 도착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의 눈길이 당황할 정도로 차가웠다. 보건소라는 곳은 아무런 시설도 없고 약품도 없었다. 서울에서 가지고간 몇 가지 약품과 의료기구가 전부였다. 보건소 앞 길 건너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웃끼리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찾아갔다. 지서장은 경찰관답지 않게 마음 좋고 순하게 생긴 중늬누이였다.

그 당시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라 커피대접은 금기였고 손님이 찾아오면 박카스 한 병씩 내 놓는 것이 상례였다. 박카스를 컵에 따라 한 모금을 마시고는 한다는 이야기가 이 마을에는 과거에 몇몇 공의가 있었는데 모두 월급만 타먹고 살기는 읍내에 살면서 마을에는 그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만 들렀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돌팔이들이어서 병은 고칠 줄도 모르고 자꾸 사고만 내서 모두 쫓겨났으며, "노선생도 언간히 잘하지 않으면 힘들 거요" 라고 은근히 겁을 준다.

그리고 보니 마을사람들의 찬 눈길이 이해가 갔다. 부임 후 몇 일간 찾아오는 환자가 하나도 없었다. 정신과 레지던트 4년차에 이제 아무도 없는 시골에 와서 이병 저병 다 고쳐야 하는 공의(公醫) 노릇을 하려니 추상화만 그리다가 갑자기 초상화를 그리는 것 같은 기분 이었다.

제일 겁나는 분야가 산부인과였다. 인턴 때 야간당직 레지던트 옆구리를 쿡쿡 찔러 밀어내고 내손으로 아기를 몇 번 받아본 것이 내 실력의 전부였다. 학생 때 보던 산과 책을 다시 꺼내서 그림만이라도 보며 기억을 되살리려 했다. 그런데 이 사내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인기없는 공의를 찾아왔는가?

첫 번째 환자가 하필이면 내가 제일 자신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와 나를 괴롭히려 하는가? 마치 나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정면으로 도전해 오는 것 같았다.

갑자기 사내가 멈춰 섰다. 이곳에 분명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지난 흥수에 떠내려갔는가 보다고 혼자 중얼거렸다. 사내는 바지를 걸어 부치더니 나더러 업히란다. 잠시 망설이다가 구두를 벗고 바지를 걸고 하는 것이 번거로워 그냥 업혔다. 다시 논두렁을 따라 한참 가다가 언덕배기에 다다르니 쓸어져가는 초가집이 하나 보였다. 희미한 등잔불이 새어나오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걸 보니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았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컴컴한 방에 들어서니 산모는 반 혼수상태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 이마를 만져보니 고열이 있었다. 그래도 격식은 갖추어야 될 것 같아서 멸균 고무장갑을 끼고 진찰을 시작했다.

반쯤 마른 태줄이 보였다. 조금 당겨보니 요지부동이다. 내진을 하듯 손가락으로 입구를 조금 벌려보니 시커먼 공갈은 것이 보였다. 조금 더 벌려보니 "퍽" 하고 물총 쏘듯 검은 공이 튀어나와 하마터면 내 얼굴에 정통으로 맞을뻔 했다.

자세히 보니 태반이었다. 대강 식염수와 소독약으로 닦아주고 항생제를 주사해주고, 해열제를 주고 나니 위기를 면한 것 같았다.

내 심장고동도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다. 사내는 내가 와서 채 일본도 안 되어 후산을 했으니 감격하여 머리를 연방 조아리며 고맙다고 한다. 조금 시간을 두고 상태를 보아야 할 것 같아 앉아 있는데, 사내는 자기 뉘두리

를 시작한다. 한참 이야기 하는데 결론은 자기는 소작농으로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다. 가을에 추수를 끝내야 품삯이 나오는데 왕진비는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솔직히 왕진비 같은 것은 생각에도 없었고 다만 위기를 면한 것만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아무 때나 형편될 때 내고 형편이 안 되면 안내도 괜찮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는 사이 열이 떨어졌는지 산모가 눈을 뜨고 의사선생님이 이 밤중에 이렇게 먼 곳까지 와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치레를 한다.

이제 임무는 완수됐다 싶어 일어나려고 했다. 사내는 잠시만 더 앉아계시란다. 아무것도 사려할 것이 없으니 보신탄이라도 만들어 대접하겠단다. 그리고 보니 아까 들어올 때 빗마루 앞에서 자다가 일어나 꼬리를 치던 강아지 생각이 났다. 짙겁을 하고 나는 보신탄은 못 먹고 더구나 저녁을 다 먹고 와서 전혀 아무 생각도 없다고 하며 도망치듯 방을 나왔다.

마을의 불빛이 보이는데 까지 와서는 혼자 갈 수 있으니 산모도 돌볼 겸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굳이 보건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것을 쫓아 보내다시피 돌려보냈다. 혼자서 시골 밤길을 걸어오자니 어릴 적 들던 달갈귀신이 쫓아오지나 않나 겁이나 뛰다시피 돌아왔다.

다음날 또 한 사내가 보건소에 혈레벌떡 찾아왔다. 자기 아내가 산고를 이틀씩이나 했는데 아직 아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젯밤 죽을뻔한 산모를 단 몇 분 만에 살려낸 용한 의사가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시골에는 소문도 빨랐다.

이번에는 진짜 마각이 들어나겠구나 생각하니 또 가슴이 방망이질을 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그 사내를 따라나섰다. 산모를 내진하니 자궁은 열렸는데 애기머리는 만져지지가 않고 무슨 조그만 것이 만져졌다. 자세히 드러다 보니 애기 발이 속 내밀고 있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애기가 발부터 나오면 응급상황이라는 것쯤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첫 번째 환자는 재수가 좋아서 위기를 면했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았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었다. 제발 무사하기만을 기도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깨가 나오고 턱이 나오고 그러더니 머리가 훌쩍 빠져 나왔다. 우렁찬 애기 울음소리에 벌떡 정신이 들었다.

Snow
Young C. Shin (59, Maryland)

Snow
Falling softly
Lies down lowly

Snow
Piles up
Without any word

Snow
Clean and white
All through within

Snow
Brings back
All my innocence

Snow
Kindly covers
All sundry dirt

Snow
Gleams dimly
Even in moonless nights

Snow
Stays stout
On icy grounds

Snow
Melts on
My warm lips

Snow
Vanishes away
When time comes

흰눈 쌓인 시골의 겨울밤

정인태(64, 조지아)

흰눈 쌓인 시골의 겨울밤은
어둡고 깊고 고요한데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속삭이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시골집 사랑방에는 초롱불 하나
그리고 빨강계 솟발피는 화로의 따뜻한 사랑...
구수하게 밤들이 익어가는 화로에
할아버지는 곰방대 담뱃재를
탁탁탁 툭툭툭 터시고는
둘러 앉은 손자들에게
"옛날 옛적 멀고 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피던 시절에..."
옛날 이야기 이어가시는
할아버지의 구수한 사랑...
들창에는 별이 가까이 엿듣고 있다.

그날 이후로는 마을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마을에 용한 의사가 왔다고 소문이 확 퍼졌다. 거리에서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며 인사를 했다.

보건소에 환자들이 연일 바글바글 대었다. 내가 제일 실력 없고 겁내던 분야에서 명의(名醫)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다. 단지 단했던 문의 빗장을 열어주고,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밖에 없는데 명의라니.

명의란 재수가 좋아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계기로 만들어 지는 것인가.

4년 동안 심혈을 기울리던 후로이드나 용같은 정신분석학은 여기서는 돼 지방뽕에 매니큐어 같아 보였다.



강창욱 (61, 메릴랜드)

추억이라는 것이 귀중하여 사람들은 놓치지 않으려 한다. 기차여행은 모든 추억이 즐겁고 아름다웠던 것같이 추억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옛 증기기관차의 칙칙뚝뚝 하는 소리 뚜- 하는 기적 소리, 커풀러가 부딪치는 광 하는 굉음, 마치 박자에 맞추는 듯 덜컹거리는 바퀴소리 등은 모두 추억을 상징한다. 우리의 마음은 추억에서 아름다운 것만 고르는 재주가 있다. 추억은 이런 지난날의 기억에서도 오지만 또한 내게는 듣고 읽은 이야기에서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한 것 같이 기시감 같은 추억도 있다. 추억은 이젠 단지 추억일 뿐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읽고 본 것에서 엮여진 추억의 발자취는 언제나 가볼 수 있으리라고 환상을 할 수 있다.

나의 절친한 친구와 읽고 들어 보지만 했던 영국의 기차 여행을 했다. 출발하는 날 버스로 런던의 빅토리아 정거장으로 향했다. 잠시 교통신호에

멈춰졌을 때 눈에 크게 들어온 것은 메더해터(Mad Hatter)라고 굵직하고 멋있게 금칠을 한 간관이 분명 퍼브(Pub: 영국식 술집)에 붙어 있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소설의 실크해트를 쓴 옷기는 인물의 이름이지만 내게는 더 우스운 기억이 있다. 내가 정신의학을 공부하던 병원의 이웃 동네(Danbury, Connecticut)에 모자 공장이 있었다. 한 세기 전에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병원에 더러 입원을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모자 제공에 비단을 모자모양으로 지키기 위해 쓴 화학약품 아질산수은염(Silver Nitrate)을 직공들이 무의식적으로 드러 마셔 이 약품의 증기에 중독이 되어 정신이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들을 메더해터라고 한다. 런던의 빈민굴에 이런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었다. 영국 사람들이 유머를 좋아하지만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하다.

이 근처에서 방랑했던 걸인 들 중에 한 시인이 있었다. 프랜시스 톰슨(Francis Thompson, 1859~1907)이 근처 빈민굴에서 방랑을 한 것은 두드러진 추억이며 그의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눈시울을 적신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 훌륭한 의과대학을 나온 그가 의사가 되기보다 문학을 하려다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길거리에서 무숙자로 전전 궁궁하다 아편에 중독이 되고 말았다. 한 참녀의 도움으로 겨우

연명을 하였지만 시를 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고백에 가까운 긴 시를 써서 메리 잉글랜드라는 출판사에 보내었다. 출판사 사장은 그 너무도 훌륭한 시를 쓴 작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주소가 없어 런던의 빈민굴을 뒤질 수밖에 없었다. 그가 쓴 시를 신문에 올렸지만 정작 작가는 그 것을 모르고 있다가 며칠 후 쓰레기통에 버려진 낡은 신문에서 자기의 시를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차는 출발을 했는데도 나는 그 생각에 잠겨 창밖을 지나가는 영국의 아름다운 전원의 정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였다. 현관을 보니 더럼(Durham)아닌가. 톰슨이 여기서 대학을 다녔고 그의 문학적 재능이 더욱 뛰어났던 곳이다. 들관을 지나 다음에 정지한 곳이 맨체스터(Manchester)였다. 톰슨은 이 도시에서 의과대학을 다녔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치민다. 왜 하기 싫은 의사공부를 억지로 했을까? 누구처럼 아버지가 원 하였기 때문인가? 숙명은 무엇이며 섭리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그 섭리를 반항할 수 있을까? 이 열차는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마치 그것이 섭리였던 것처럼 톰슨에 대한 추억의 여정을 안내해주었다. 아니 프랜시스가 나를 안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환상도 하였다. 문득 그의 그 유명한 시가 다시

나를 불러 잠시 그와 함께 걸어가 보기로 했다.

하늘의 사냥개(Hound of Heaven)

나는 그이로부터 달아나기만 했다. / 나는 그이를 피해 태곳적부터 달아났다 / 나는 미로에 빠지면서도 달아났었다 / 내 마음속으로; / 눈물을 적시며 / 나는 그로부터 달아나 숨으려 한 없이 애를 썼다. / 바람결에 흘러오는 그의 비웃음소리를 들으면서 / 내 눈앞에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곧 / 마주칠 것 같기도 한 전망으로부터 나는 달아났다. / 나의 조각 조각난 공포 사이로 이미 엄청난 비관의 화살이 날라 왔다. 하나 / 그는 장엄한 걸음걸이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를 추적해온다. / 서서히 유유히 나를 추적해온다. / 그리고 침착히 나를 추적해온다. / 분명 하고 정밀한 속도로, / 장엄하면서도 긴박하게 / 박자에 맞추듯 / 그의 근엄한 목소리도 그 박자에 맞추듯, 그러면서도 / 그의 목소리는 발자국 소리보다 더 근엄하다 / ‘나를 배반하는 너를 모든 것이 배반할 것이다’ 라고. / ... /당신 이 나를 보충하려고 뻔한 당신의 그 손의 그림자가 아니었던가요? / ‘아! 이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이 자가 바로 / 당신이 찾던 자였군요!’ / 당신의 깊은 사랑이 나를 열정적으로 찾으셨군요.

생일 파티



서 랑 (69, 대뉴욕)

촛불에 대해서 연구했다. 촛불은 양초, 하는 초와 불이야! 할 때의 불이 합쳐진 합성어다. 발음 편리상 초불이 촛불로 변했다. 비물이라 하지 않고 빗물이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초는 한자어 ‘촛불 축(燭)’에서 유래했다. 전구의 60축, 100축 하는 바로 그 ‘축’이다. 초는 축에서 기억자가 없어진 말이다. 말을 아끼자면, 촛불이라 하지 않고 그냥 ‘축’이라 해도 뜻이 확실하다.

촛불이라는 단어는 중언부언한 말이다. 늘 과잉을 좇는 우리는 역전(驛前) 대신 역전 앞이라 하고 처가(妻家)라 하지 않고 처갓집이라 하지 않나. 똑같은 말을 전격적으로 되풀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이다.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 사상이 진작에 죽어버린 요즘 세대에 당신과 나는 차라리 과장법의 독액(毒液)에 배를 적시고 싶다.

촛불을 영어로 ‘candlelight’라 한다. 곧이곧대로 말하면 ‘candlelight’는 촛불이 아니라 ‘촛빛’으로 옮겨야 한다. 촛불은 뜨거운 불에 착안점을 뒀지만 ‘candlelight’는 빛이 사물을 밝게 비춘다는 점에 그 하이라이트가 있다.

당신은 시방 너무 성급하게 걱정하지는 말거라. 내가 이 판국에 촛불을 촛불이라 하지 말고 ‘촛빛’이라 하자며 손에 촛불을 쥐고 광장에 출두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촛불에서처럼 불에 악센트를 두고 뜨거운 밝히는 우리들 사고방식에 비하면 서구인들은 확실히 환한 빛을 독려한다. 추위를 타기 잘하는 우리의 감성과 어둠을 꺼리는 그들 기질과의 대조가 섬뜩하게 느껴지는 2016년 12월이다.

독일의 시성 괴테(Goethe)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말, “좀 더 빛을! (More light!)”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요컨대

당신은 그가 죽기 전에, 몸이 추우니까 이불을 덮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가. 신이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하는 구약 창세기 1장 3절은 어떤가. 신도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는 불보다 빛을 선호했다.

나이 지긋한 당신은 손자 손녀 생일 파티에 간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이다. 아들 손자 며느리 여럿이 물려들어 들뜬 목소리로 해피 버스테이를 노래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귀여운 당신의 후예가 조그만 입을 오르려 촛불 몇 개를 훅! 끄는 장면도 목격했을 것이다.

우리는 왜 탄생을 축복하는 가장 기쁜 순간에 촛불을 끄는가. 타고르는 촛불의 격정을 죽이는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 하얀 토가(toga)를 몸에 두른 회합사람들은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Artemis) 성전을 자주 찾았다. 그들은 보름달처럼 둥근 케이크를 들고 갔다. 그리고 달빛을 상징하는 촛불을 원시의 케이크에 두루두루 꽂았다. 어둠을 비추는 달빛이 천하에 퍼지는 장면이다. 결코 뜨거운 분노의 촛불이 아니었다.

생일 파티 때처럼, 그들은 활기찬 포획과 풍족한 일상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 그리고 절절한 소망에 집중하면서 촛불을 끈다. 촛불이 꺼진 자리에 향불처럼 피어 오르는 연기, 그 때 깨한 연기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향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지켜본다. 촛불의 영혼이 승천하는 정경은 그들이 신에게 띄우는 간절한 메시지였다. 촛불을 꺼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초(燭), ‘candle’과 발음이 매우 흡사한 말로 본래 12세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탄생한 ‘kindle’이 있다. 뜻은 ‘불을 붙이다!’ 이 말은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로도 자주 쓰인다. 하지만 너무 오래 동안 불을 만지면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불장난 하면 오줌 싩다는 말은 불을 향한 흥분이 풀어질 때 당신의 팔약근도 함께 풀어진다는 뜻이다.

- 뉴욕 중앙일보, 2016년 12월 15일, 서랑의 고정 칼럼 <집광경>에 게재

해바라기

Ellen Chung 정낙섭 (60) 동문 부인



뜨거운 태양아래 홀로 서 있는 해바라기 정열을 태우지 못한 채 고개 숙였네. 해따라 별따라 둥근 얼굴 비쳐 보이며 미소 짓고 있네.

저녁, 노을진 언덕위에 홀로 서 있는 해바라기 못다한 사랑이 슬픔이 몽어리되어 둥근 얼굴 속에 씨가 되었네.



감을 어찌나. 그 가치와 이념이란 보수도. 보수란 누군가의 말을 빌리면 아래 다섯 가지를 따르려 하고 지키려 하는 가치를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1. 보수는 공조직을 우선한다.
 2. 보수는 청렴결백을 군자의 덕속으로 삼는다.
 3. 보수는 시의에 따라 수시로 변절하지 않는다.
 4. 보수는 상대방을 절고넘어지지 않는다.
 5. 보수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보수적 가치는 위선을 싫어한다.
- 대강 이렇게 다섯 가지를 목표 지향하고 너무나 상식적이라 각 항목에 따르는 구체적 설명은 생략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덕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다 시야를 넓혀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수주의란 1973년 창설된 미국 최대 보수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말을 빌려야겠다.

1. 자유시장체제와
 2. 국가 안보(National Defense)다.
- 지금, 이념투쟁의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 한국이 다시 한 번 새겨볼 말이다.

대통령이 무너져 버렸다. 아프다. 참, 아프다. 그러나 내일, 또 태양은 떠오르듯, 대통령은 쓰러져도 보수가 지향하는 그 가치와 이념은 쓰러질 수 없다. 문제는 그 깃발을 누가 지고 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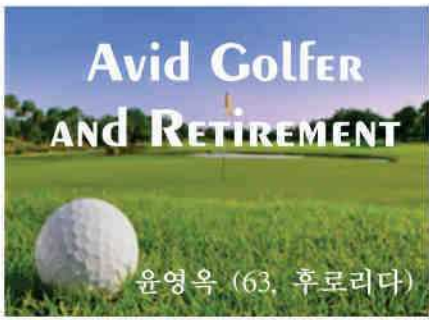
死即生, 生即死를 부르짖으며.

허탈(墟脫)

방 준 재 (70, 대뉴욕)

집을 나섰다. 바람이 휘익 분다. 차가운 바람이다. 때 아닌 겨울철이 온다더니, 시월에 겨울이 온 듯하다. 차가운 빗줄기에 떨어진 낙엽들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세월이, 가는 세월이 발길에 밟힌다. 휘익 바람이 또 분다. 얼굴을 스치고 목덜미를 지나가는 바람이 꽤나 차다. 본능적으로 목을 움츠리고, 양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 춥다. 엄청 춥다. 갑자기 엄습한 겨울 날씨 탓도 있지만 기가 빠지고, 사지에 힘이 빠져버린 탓이다. 속이 텅 빈 듯 하고 정신까지도 멍해져 버린 탓도 한 몫하고 있다. 엇그제 대통령의 사고 발표문, 그 후에 내게 밀려온 이 허탈감이 주원인이라 생각 하고 있다.

대통령의 주변인사 소문은 항상 있어 왔다. 미국에 와서 산지도 꽤나 되는 내 귀에도 들릴 지경이면, 대통령의 측근이나 정치동지들은 소문으로 들은 나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황을 접했거나 목격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난 3년 반의 치적은 관두더라도 정권이 표방했던 그 가치와 이념이 강그리 무너지는 이 허탈



윤영옥 (63, 후로리다)

은퇴하실 장소를 찾으신다면 당연히 정들어 살아오시던 그리고 그동안 정들었던 친구들이 있는 그 곳, 교통이 편리한 그리고 비행장이 가까운 곳, 병들었을 때를 생각해서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 자식들이 가까이 살거나 쉽게 올 수 있는 곳, 한국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한국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고 한국교회도 많이 있는 곳, 또 기후도 좋은 곳 등등 많은 여건을 생각하시겠지요.

요즈음은 인터넷의 발달과 지방에 있는 의료시설이나 의료서비스의 발달로 꼭 큰 도시에서 pollute된 환경에서 산다는 것이 그리 큰 장점은 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골프를 아주 즐기셔서, 저와 같이 주일날만 빼고 매일 골프를 치시는 avid golfer라면, 한번쯤 생각 해

보실만한 점들을 써 봅니다. 첫째, 사시는 곳의 기후와 위치(위도)입니다. 일 년 내내 골프를 치시려면 남쪽에 사시어야 합니다. 우리가 '황금기'에 들어서면, 매일 밖에 나가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기에 좋은데, 북쪽에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겨울에 추워서 골프를 치지 못할 때는 실내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해야지" 하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좀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겨울에, 첫째 tee ground에 모여 서서 "은퇴하고도 아직 북쪽에 있는 골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농담도 합니다. 남쪽이라해도 여름 날 오후에는 너무 더워서 골프를 치기에 힘든 곳은 피해야 하겠습니까. 친구들과 매일 아침 골프를 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은 확실히 좋은 일입니다.

둘째, 골프코스입니다. 만약 80대후에도 골프를 즐기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사항들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골프코스가 너무 어렵다면, 예를 들어 island green이라던가 water hole이 너무 많다면 하는 것은 보기에는 아름다울 수 있으나 우리 senior들에게는 결국에는 스트레스만 올려줄 수

있습니다. 골프코스가 너무 hilly해서 golf-cart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tee shot을 치기위해서나, 그린에 가기 위해서 언덕을 오르내리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언젠가는 관절에 이상이 오기 마련입니다.

소속된 골퍼클럽이 개인의 골프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훨씬 편리하고, 경비도 적게 듭니다. 매년 골프채를 차에 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힘들지만 golf-cart fee와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매번 tip을 주는 것도 귀찮은 일입니다.

골프는 4시간 내에 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걸어서 치는 사람들 때문에 "하루 종일" 걸려서 치게 되면 매우 맥 빠지는 일입니다.

골프코스가 sandy soil이면 역시같이 내리던 비가 그치기만하면 골프카트를 타고 칠 수 있지만, clay soil이면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며 golf pro는 얼른 "Cart Path Only"를 요구 하게 됩니다. 우리 황금기의 시니어가 소나기가 지나간 더운 여름날 오후 "cart path only"로 치면서 골프를 즐길 수가 있겠나요? 어렵도 없는 말씀입니다.

셋째, Golfing Partner입니다.

친한 골퍼들이 같은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골프코스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퍼블릭 public course에 만나서 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주 모여서 치기가 힘들어 질 것입니다.

자기가 들어 있는 골프코스의 guest fee가 너무 비싸면 친구를 초청하기도 힘들어지고 또한 초청받는 사람도 힘들어 집니다. 항상 마음을 놓고 서로의 부담이 없는 골프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자기 혼자서 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녕 즐기는 골프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여유가 있고 친한 친구 사이일지 모르지만 1-2볼 이상의 내기를 하는 것은 별로 좋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Extra Activity입니다. 골프를 즐기는 외에도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fitness center가 있다면, 좋은 산책길이 있다면, 매일 또는 자주 갈 수 있는 등산코스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각자 선호하시는 여러 관점이 있었지만 저와 같은 avid golfer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까하여 제 개인의 의견을 써 보았습니다.



인간 박근혜

이원택 (70, 남가주)

정통정신의학에서는 환자가 아닌 제삼자의 정신분석을 금기로 여겨왔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개방된 현대사회에서 상대방의 개인 비밀이 보장되는 한 정신과 의사라고 입 닥치고 앉아 있으라는 법은 없다. 대통령은 인기 직업이다. 사생활이 파헤쳐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박근혜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부친이 청렴결백했다고 하지만 2살 때 '장군의 딸'이었으며, 9살 때부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귀염둥이'였다가 22살부터 5년간 일국의 '영부인' 역할을 해 온 여자이다. 그 후 10년간은 집거 생활을 강요받았다.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여고와 남녀공학 대학교에 다녔으나 차로 태워다 주고 데려가니 한눈을 팔 길이 없었다. 남자나 여자나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본인도 콧대 높은 모범생 역할을 잘 해 나갔다.

주로 부유층이나 권력층의 자제에게 많이 나타나는 자기애성 인격(narcissistic personality)은 자기는 선택된 인간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숭배받을 권리가 있으며 타인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주제넘은 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나 딴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또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착취하는 것도 불사한다.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본모이다.

세 형제의 말이 노릇을 하라 그랬는지 자기 수양인지 모르겠으나 박근혜 씨의 경우 이와 같은 갑질 현상은 많이 수그러진 편이다. 아들에게 실망한 박정희 씨가 딸에게 '제왕학'을 가르쳤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에 타인이 자동적으로 순응해야 한다는 욕구는 버리지 못한 것 같다.

또한, 박근혜 씨의 후반기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편집성 인격성향(paranoid personality trait)

이다. 어려서부터 의리와 배신이 명멸하는 환경에서 자라났다. 자신의 아버지가 삼촌같이 따르던 친구에 의해 피살된 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가(?) 믿을 놈이 어디 있는가(?).

한마디로 박근혜 씨는 불안과 불신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셈이다. 정신적인 성의 개발도 불안전했다고 보아야 한다. 부모가 붙여준 가정교사도 거의 아줌마들이었다. 신체적인 성적 욕구가 좌절될 때 공상에 의한 영적 사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밝은 대낮에 어머니를 잃고 나라에 빠져 있을 때 구세주 역할을 해 준 사람이 최태민 씨이다. 아픈 곳을 다독여 주는 사람보다 더 고마운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사랑에 빠졌을 리야 없지만 고마움이 사랑으로 변했는지도 모른다.

박근혜 씨는 부친 사망 후 전두환·노태우 정권 10년 동안 집거 생활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동생들과도 소원한 관계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최태민 - 최순실 씨로 이때 최태민 씨는 '대부', 최순실 씨는 '동생' 역할을 독특히 해 냈다.

자기애성 인격자들이 다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나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 유난히 자기애성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와 같은 '천성'을 옆에서 부채질 해 준 사람들이 최 씨 모녀일 것이고, 박씨는 그들에게서 '피보다 더 진한 물'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본래 편집성 인격을 형성하는 요인은 불안이다. 그리고 불안 중의 제일 큰 불안은 생존에 대한 위협이다. 그는 평생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권력의 암투를 지켜본 장본인이다.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으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어떤 영적인 존재 말이다. 전부터 종교가 있던 사람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초심자에게 제일 솔깃한 것이 무속신앙이다. 나 좀 살려달라는 원초적인 욕구이다.

기복 사상은 교육의 정도와 무관하고 오히려 불안의 강도에 좌우된다고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다. 편집성 성격이란 한곳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믿으려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 그 래야 덜 불안하다. 혼란했던 군사 정권 때는 '박정희교' 라는 것도 태동했었다. 그렇다고 사이비 종교가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사이비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보편타당하지 않다는 말이다. 즉 어떤 것은 무지하게 사랑하는 반면 어떤 것은 맹목적으로 미워한다. 중독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재벌들이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재벌들을 불러놓고 미르재단에 1천억 원을 각출하라고 지시를 했다. 자신은 일국의 대통령이 기 때문에 그 정도는 먹혀 들어 가리라 생각한 것이다.

아버지 시대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영악해졌는가? 암만 동기가 순수해도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다. 다 박정희 씨가 구축한 불신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과 대통령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왔다.

인간의 인격형성은 유전보다 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좋건 나쁜건 박근혜 씨의 성격도 사회의 산물이고 어떤 병폐가 있다면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박근혜 씨의 별명이 소통이 안 되는 '먹통', 세상 물정 모르는 '칠꾼이' 유머 감각 없는 '발끈해' 등이지만 한편으로 그는 원칙주의자이다 책임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대통령이란 뭔가 달라도 좀 달라야 한다고 믿어 마지않는다. '아무나 대통령을 하나', 일국의 어른' 이신데, 똑똑하고, 청렴하고, 강직하고, 통이 크고... 쪼대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오죽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분이 울먹이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가? 그러나 그는 그의 '성격상'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마따나,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한중(65, 미시간)

촛불들,
기도와 희망으로 가득찬 가슴들,
아니 약동하는 심장들

촛불들의 바다,
저 태평양의 구석구석 까지
저 어둠으로 채워진 온세계를
밝혀보려는 용지의, 용기의,
간절한 기도, 절규, 소망,
백의 민족의 백설 보다는도 순수한
기도, 절규, 소망

촛불들의 파도
끝이없는 파도
지구의 동북쪽 한구석, 코리아에서
묵묵히 온세계로 퍼져나오는
강열한 태양의 빛, 열정의 태양.
저항할수 없는 간절한 순수한
백의 민족의 기도, 절규, 소망.
저 망망했던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정의와 진리, 평등과 정직함의 짙은
불빛, 햇볕에 쏘이누나.

오, 기도하노라.
그 어여쁜 짝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저 촛불들,
저 약동하는 심장들,
저 간절한 기도, 절규, 소망들의
순수한 아름다운 진실을 위해서
저 코리아의
저 백의 민족의
기도, 절규 소망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하염없이
기도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분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6년 7월 1일 ~ 2017년 1월 15일

- 1948 한용현 1949 고영철
- 1950 한원봉 1951 이상하
- 1952 김은태 김정준 박종식 1953 이상봉
- 1954 김갑균 이동식 1955 노용면
- 1956 김신형 도상탁 박상기 유호준 주장춘
- 1957 강영섭 김용진 김일훈 서영환 임종식 임종원 정진묵 한성택
- 1958 김기태 김부근 김석희 김수산 김시한 김순옥 김운범 김학륜 박용화 박호현
배영섭 신영철 유영호 이만택 이상문 이상철 이운순 이종윤 이희성 임영신
최병두 최창승
- 1959 강상진 강재룡 김교안 김은섭 김용덕 김한섭 나길진 박용순 방덕환 방석운
서경화 신영철 신한수 이교락 최대환 최용천 최종진 한성업
- 1960 권기홍 김영환 김택경 박명근 박병돈 박춘명 박형순 염극용 이광준 이덕승
이상일 이순환 이종석 임종원 진희근 정낙섭 조재동 한성수 한일성
- 1961 계훈택 광동린 김영철 김예홍 김유홍 김화섭 박승균 박장생 박준환 서휘열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재두 이재승 이준우 이한수 이회백 장성환 장태환
정두현 정철웅 조은순 최공창 최용성 최태순 한수용 한해원 황현상
- 1962 구정울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남성희 문성규 박종건 박찬형 송영두 오태요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이상원 이석우 이영웅 이용길 조명호
- 1963 권영조 고영희 김승태 김정일 김태웅 김태형 김현철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박세록 서경석 신경호 윤영욱 이승현 이재명 왕규현 윤영섭 윤진수 이기환
이능석 이범세 이병준 장세곤 정관호 조열하 조한원 진병화 한광수 한기현
선우건영
- 1964 권정덕 김용두 라찬국 박세준 박한영 신두식 안연승 양문택 오수환 오유섭
유 강 유광현 유창남 윤희기 이정은 이정필 이주영 이종오 이흥표 임병훈
전희택 정인태 조성준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 1965 구경희 권오연 권태해 김대언 김덕진 박수안 서좌익 서홍석 신백효 윤원길
이광선 이범석 이재진 이정희 이한중 이화성 장재찬 전영균 정길화 정재찬
조성규 지영환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최영인 한재은 홍수용
- 1966 광일성 김은한 김의신 김용재 김우신 김진수 김충규 민발식 윤락승 이명희
이성근 정량수 조관상 최순채 최영자
-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태웅 문경용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준식
이태안 최무용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경인 김영남 김재관 김주평 김희주 노영일 박정식 서운석 송창호
신규호 신용계 안공환 안세현 유우영 윤병인 이건일 이대용 이병순 이상훈
임공세 정재성 주광국 차재철 최 철 홍광신
- 1969 김병오 김병오*김운성 김중권 변영석 송용재 안병일 엄규동 오선웅 육순재
윤희운 이충오 임웅규 최종일 최종진
- 1970 김형달 노승국 박찬진 박홍식 방준재 장극기 송요준 여준구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고기영 김성환 김유식 김효순 김 훈 노재홍 박상효
배성호 서상현 서정자 양성훈 오동환 윤기철 이상길 이원택 이종일 장 철
조병선 조세진 최수강 최영철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 1972 권영조 김광호 고창범 김재석 박찬호 오용호 이기진 최인섭
- 1973 나두섭 김정용 김천일 민인기 박진섭 서인석 심완섭 이계석 임준형
- 1974 구재훈 권철수 김용진 윤영준
- 1975 김원정 김자역 박인영 전경배
- 1976 김정아 유영길 정경화 최광휘 한승신
- 1977 강준희 김동훈 박일우
- 1978 최은복 허경열 1980 박남훈
- 1981 이선희 한창규 1982 차민영
- 1984 서귀숙 1988 이민재
- 1989 이선규 1991 홍정연
- 1994 안상훈 2000 박은경
- 2002 신동인 최태웅 2009 송경민
- 2011 김유리 2014 나중호 김나현

- 2회 이상 납부하신 분 *VA

34th CONVENTION DONATION

- 노용면(55) 200 김운범(58) 100 이운순(58) 700 최창송(58) 500 강상진(59) 100
- 권기홍(60) 1500 염극용(60) 50 강창욱(61) 200 박승균(61) 100 송영두(62) 200
- 이상무(62) 100 정정수(62) 490 조명호(62) 200 권영조(63) 200 김태웅(63) 1000
- 조한원(63) 75 권정덕(64) 200 유 강(64) 100 이흥표(64) 1000 전희택(64) 300
- 허선행(64) 200 백길영(65) 500 최동욱(65) 400 김충규(66) 200 이근웅(67) 400
- 한영수(67) 300 고남규(68) 500 김경인(68) 1000 김명원(68) 1216 김상우(68) 1000
- 김주평(68) 1000 김희주(68) 200 노영일(68) 200 서진석(68) 500 서운석(68) 500
- 송창호(68) 1200 신규호(68) 1000 신홍식(68) 1000 안공환(68) 100 안세현(68) 300
- 유우영(68) 300 윤병인(68) 365 이대용(68) 300 조승열(68) 60 차재철(68) 500
- 최 철(68) 2000 홍광신(68) 700 황훈규(68) 500 김중권(69) 1000 변영석(69) 500
- 안병일(69) 1000 윤효윤(69) 100 강태수(71) 100 광승용(71) 500 김성환(71) 1500
- 김유식(71) 100 배성호(71) 300 윤기철(71) 500 장문석(71) 100 조병선(71) 275
- 고창범(72) 300 박찬호(72) 1000 석창호(72) 2000 오용호(72) 200 이기진(72) 300
- 김천일(73) 100 나두섭(73) 200 서인석(73) 500 이계석(73) 100 박인영(75) 100
- 최광휘(76) 200 차민영(82) 3000 박정미(85) 50 안상훈(94) 200 김유리(11) 200
- 남가주지부 1000 미주재단 1000

GREEN PROJECT FUND

- 김은섭(59) 200 이종석(60) 75 김한중(62) 200 이용길(62) 100 이흥표(64) 200
- 허선행(64) 200 민발식(66) 100 이상훈(68) 75 김병오(69)*100 배성호(71) 100
- 오용호(72) 100 윤기철(71) 500 서인석(73) 100 박인영(75) 200 김정아(76) 1000
- 한승신(76) 100 김동훈(77) 100 박남훈(80) 200 서귀숙(84) 200 최태웅(02) 100
- 박은경(00) 50 * VA

CHARITY FUND

- 최창송(58) 1000 강상진(59) 100 신두식(64) 100 홍선경(64) 100 최영자(66) 200
- 김유식(71) 75 배성호(71) 175 민인기(73) 100 김용진(74) 100

SCHOLARSHIP FUND

- 김신형(56) 200 김운범(58) 100 강상진(59) 100 한성수(60) 100 권기홍(60) 500
- 강세부(61) 500 황현상(61) 75 이기범(62) 125 한기현(63) 100 이흥표(64) 175
- 구경희(65) 300 이영균(67) 100 서운석(68) 500 배성호(71) 300 서정자(71) 375
- 최수강(71) 100 김용진(74) 100 김자역(75) 500

GENERAL DONATION

- 오동렬(48) 3000 노용면(55) 75 김석희(58) 200 한성업(59) 75 박명근(60) 50
- 서영석(61) 100 장성환(61) 100 송용두(62) 200 김태형(63) 75 김현철(63) 75
- 정인태(64) 100 최준희(64) 175 허선행(64) 100 권오연(65) 75 박수안(65) 75
- 정길화(65) 100 정량수(66) 75 최순채(66) 75 김성철(67) 75 문경용(67) 200
- 이건일(68) 10000 서 량(69) 500 윤효윤(69) 100 김형달(70) 100 서상현(71) 75
- 오동환(71) 100 심완섭(73) 50 유영준(74) 75 김동훈(77) 100

DIRECTORY FUND

- 노인규(63) 75

* 작고하신 동문들의 부인들인 Mrs. 오동렬(48), 정낙섭(60), 서영석(61), 서진석(68)께서 시계탑을 고맙게 받아보고 계신다는 소식과 함께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rs. 서계 2017년 1월 초 시계탑에 온 편지
또 한해가 성큼성큼 지나가고 새해 새달이군요.
정말 속도도 더 빨라지고 세월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매 끼니때를 해결하고 나면 허탈해 집니다.
먹고 사는 일을 로봇이 해 주는 세상이 오면 어떨까요.
가끔 엉뚱한 생각에 물만 마시고 행복 지수는 높아 지는게 아닐까.
저 숲에서 뛰어다니는 노루새끼, 비버처럼 말이에요.
요즘 1월, 2월 추워라고 해봐야 한국의 강원도 추위 만큼 하겠어요?
영하 20도 안팎이잖아요. 눈이 하얗게 쌓인 겨울밤엔 TV를 끄고 오래된 시집을 꺼내봅니다. 겨울엔 한국 생각이 많이 나요.
조상님들의 제사가 많거든요. 밤 바람이 차지만 그런대로 참을만 합니다.
여기 Check 동봉하며 다음달에 만나요. (수) 신용계(68) 동문 부인

2017년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사진 공모전

사진은 추억을 담은 그릇이자 예술입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사진학'에 정진하는 마당에 북미주동창회에서는 '걸작' 들을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진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제:

Artistic photos: 한 명당 5편 이내 출품이 가능함.
가능한한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첨부 요망함.

응모 요강:

- * 마감일: 2017년 2월 20일
- * Digital 사진: 파일 용량 5-10MB/per picture 이하의 JPG file
- * 접수: union13728@gmail.com (by e-mail 시계탑 편집실)
snucmaa@yahoo.com

수상작 선정:

* 2017년 2월 한 달간 접수된 작품은 회장이 임명하는 3-5명의 심사위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1, 2, 3등 및 가작을 선정, 소정의 상금을 2017년 3월 학술대회장에서 수여할 예정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 * 출품된 모든 작품들은 접수 후 1-2일내 접수되었음을 이메일로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확인바람.
- 지난해 9월 설치된 동창회 웹사이트 'Photo Contest'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응모한 작품들을 시계탑에도 사용될 수 있음.
- * 가능하면 모든 작품들을 수록한 사진첩 혹은 DVD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회장 이건일(68) / 편집장 서운석(68) / 심사위원: 백길영(65), 조의열(66), 홍광신(68)

34th Annual Medical Convention

March 1(Wed) - 5(Sun), 2017

Pacific Palm Resort

One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Reservations: 1-800-524-4557 Main:855-696-6715 Fax: 626-964-9535

Program	CME / Non-CME	3월 3일에서 3월 4일
	CME Credit category 1 through the accredited institution for attendant only on site	

Pre-Convention Golf		OAK Quarry Course and Pacific Palm Resort Babe course
일 정	3월 1일 10 A.M. Tee time	
장 소	OAK Quarry Course, 7151 Sierra Ave. Riverside CA 92509	
예 약	(951) 685-1440 for SNUCMAA Site link for reservation: http://oakquarry.com	
비 용	\$100/ round 1인 (Green fee, Bus, 점심포함)	
일 정	3월 2일 8 A.M. Tee time	
장 소	Pacific Palm Resort IKE Course, One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91744	
예 약	(626) 810-4455, (800) 524-4557 for SNUCMAA Site link for reservation: http://www.pacificpalmsresort.com/golf	
비 용	\$55/ round 1인 (Green fee \$44 + 점심 \$11 포함)	
Pacific Palm Resort 예약		
주 소	One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91744	
예 약	(800) 524-4557, Block Code NC 3189 under SNUCMAA Site link for reservation: https://cp.pacificpalmsresort.com/login1.htm (Log In:SNUCMAA, Password: 2017)	
요 금	\$149/night 2인 1실 (2월 28일에서 3월 5일까지 block)	

REGISTRATION FORM

이름(한글)	Name(English)		
졸업년도	email:		
*할인: 한 학년당 10명 이상 참석시 10% 할인이 해당되고, 12월 20일 이전 등록이고, 회비와 전경비 선불 하실때 입니다.			
Registration Fee	1966년과 그 이전 졸업	\$100/ 회원	\$
	1967년과 그이후 졸업	\$200/ 회원	\$
	Training 중	Free/ 회원	\$
Regular Grand Banquet	Grand Banquet (3월 3일)	\$140/1인	\$
Regular Buffet Banquet	Buffet Banquet (3월 4일)	\$120/1인	\$
Pre-Convention Golf green fee (3월 1일)		\$100/Round 1인	\$
Pre-Convention Golf green fee (3월 2일)		\$55/Round 1인	\$
Post Tour fee (3월 4일 토요일 Half day Paul Getty Museum 점심식사 포함)		\$80/1인	\$
Post Tour fee (3월 5일 일요일 All day Joshua Tree Park 점심, 저녁식사 포함)		\$180/1인	\$
		Sub Total	\$
		Convention Donation	\$
		Grand Total	\$

All checks Payable to **SNUCMAA**

Address send to :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문의전화 및 fax와 email information : (516) 365-5500, (516) 365-5501(fax), snucmaa@yahoo.com